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56호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
03

코스피 1994.07 (-15.22)
코스닥 690.77 (+0.45)
금리(국고채 3년) 1.76 (-0.01)
환율(원·달러) 1165.30 (+1.80) 〈3일〉

사시 4년 더 존치…

贊 흙수저에 기회 vs 反 고시낭인 양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환영하는 새누리당 관악을당원협의회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연합뉴스

"사시 폐지"
불합격자 취업시기 놓쳐
법조인 전문성 결여 문제

"사시 존치"
비싼 로스쿨 교육료 부담
현대판 음서제 부작용 심각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 온 두 진영의 표정도 엇갈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 반복되는 사시 존폐 논란

사시 존폐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해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 로스쿨 학생들 자퇴하겠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올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대한변협 "존치에 정부가 더 나서야"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유현희·김성현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신동빈 통 큰 결단… 호텔롯데, 상장 땐 액면가 500원

거래소 설득에 '황제주' 포기
파격적 액면분할 '국민주' 선택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황제주'(액면가 5000원) 대신 '국민주'(500원)를 택했다.

3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호텔롯데의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황제주'가 아닌 '국민주'로 투자자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호텔롯데는 지난 9월 초 임시주총을 열어 종전 1만원인 주식 액면가를 50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래소는 액면가 5000원으로는 상장 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액면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롯데그룹에 제안했다. 거래소의 끈질긴 설득과 신동빈 회장의 통 큰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의 혼란과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 탈락의 아픔을 호텔롯데 상장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더불어 양대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이 마무리되면 상장에 반대해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가 줄어드는 반면 신동빈 롯데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악화된 여론을 극복하고 일반 투자자의 공모 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유효한 카드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액면분할로 개인투자자들의 종목 접근이 쉬워질 경우 그룹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서 "옛 삼성물산과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힘겨루기에서 보듯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는 '남이 아닌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이달 중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

불법 · 폭력 시위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버스가 밧줄에 끌려 나가고, **경찰관들이 쇠파이프에 가격당하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까지 '폭력 진압'이라고 매도한 이들이 또다시 내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쇠파이프 등을 동원하여 계획적인 폭력행사를 하고도, 이제는 피해자인 양 '평화시위' 운운하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는 등 **철저히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진적 집회·시위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집회, 폭력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불법 집회·시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소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불법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거나 선동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과 함께, 국민들의 매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선진적인 집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불법과 폭력이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무부 장관** 김현웅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경찰청 청장** 강신명

한줄 News

정치·사회

▲ **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가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연장해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옐런 의장의 한마디에 국제 금값과 유가가 동반 하락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 동쪽의 **샌버나디노**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3명이 크리스마스 파티장을 급습해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산업

▲ **기아자동차**가 3일 스포티한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성능을 가솔린 모델 이상으로 강화한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차량 가격은 2824만원부터다.

▲ 4일 **삼성** 임원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4일 후속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

▲ **카카오**가 자사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 보드게임 진출 신호탄을 쐈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드 게임이 회원 수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카카오의 소셜 기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부동산

▲ 신한·KEB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외환, 송금 서비스 등에 속속 '블록체인(Blockchain)'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이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 외에도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자산으로 인기다.

유통&라이프

▲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11월28일~30일) 동안 **옥션**의 해외직구 상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TV다.

▲ 3일 **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는 본격적인 킴스클럽 매각작업에 돌입했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맡았다.

▲ **LG트윈스**는 3일 투수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피칭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이상훈 코치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 힙합 가수 **현진영**이 8년 만에 힙합 재즈곡으로 컴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순 힙합 외길 인생을 걸어온 자신의 심경을 담은 새 싱글 '무념무상'을 공개한다.

3분기 성장률 5년來 최고… 체감경기는 위축

〈1.3%〉

부동산 경기호조 등 영향
국민소득도 1.4% 늘어나

美금리인상 우려 등 여파
내년 한국경제는 안갯속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기대비 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와 소비 진작책 등의 덕분이다.

GDP 성장률 상승에 더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도 늘면서 국민소득도 전기보다 1.4%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와 파리테러 영향 등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은 안갯속이다.

◆3분기 GNI 381조원, 1.4% 증가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81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0.1% 줄었던 국민소득은 1개 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박민수 과장은 "국민소득 증가는 GDP 증가에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자·배당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전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0%에서 3분기에 0.2%로 떨어졌다가 4분기에 1.6%로 올랐다. 이어 올해 1분기엔 4.2%로 5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지만 2분기엔 0.1% 감소했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3분기 명목 GNI는 전기보다 1.7% 증가했다.

환율이나 유가의 영향이 큰 수출입 물가까지 모든 재화와 서비스 물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동기대비 2.6% 상승했다.

3분기 총 저축률은 35.8%로 2분기(35.3%)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국내 총 투자율도 28.8%로 2분기(28.0%)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은 1.3%로 집계됐다. 이로써 실질 GDP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면서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농림어업의 생산은 전분기보다 6.5%나 늘었고 건설업도 전기보다 5.6%나 성장,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LCD, 선박 등이 부진했지만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증가하면서 0.1%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음식숙박업, 운수·보관, 보건·사회복지 등이 증가하면서 1.0%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1.2%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5.0% 늘었다.

◆체감경기 다시 위축

그러나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다시 싸늘해 지고 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소멸과 '11·13 파리 연쇄 테러' 여파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7.5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 수가 '좋다'고 답한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기업들은 내수(101.6)를 제외한 수출(98.6) 투자(99.0) 자금 사정(97.3) 재고(104.1) 고용(98.6) 채산성(98.8) 등 모든 부문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업 매출이 작년부터 줄고 있고 내년 성장률도 2%대가 전망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구조재편(원샷법)·노동개혁 입법, 한·중 FTA 비준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제회복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국민총소득, 디플레이터, 저축률 및 투자율〉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13				2014 p				2015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명목 GDP 1)	1.2	1.2	1.3	0.3	2.2	-0.1	1.0	0.3	3.0	0.7	1.2
	(2.6)	(3.7)	(4.7)	(4.0)	(5.2)	(3.6)	(3.4)	(3.4)	(4.3)	(4.9)	(5.3)
명목 GNI 1)	1.0	1.5	0.9	0.6	2.1	0.0	0.8	0.6	3.6	-0.5	1.7
	(2.5)	(2.9)	(4.4)	(4.0)	(5.2)	(3.5)	(3.6)	(3.6)	(5.2)	(4.3)	(5.4)
실질 GNI 1)	0.3	2.2	0.6	0.9	1.0	1.0	0.2	1.6	4.2	-0.1	1.4
	(2.8)	(3.9)	(3.9)	(4.3)	(4.8)	(3.5)	(3.2)	(3.7)	(7.1)	(5.8)	(7.0)
GDP디플레이터 2)	0.5	1.0	1.4	0.5	1.2	0.2	0.1	0.7	1.8	2.7	2.6
총저축률 3)	34.3	34.6	34.3	34.2	35.0	34.6	34.7	34.7	36.5	35.3	35.8
국내총투자율 4)	29.5	28.1	28.9	29.5	28.9	28.6	30.0	28.7	28.1	28.0	28.8

주 : 1)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 2)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3) 총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 4) 총자본형성/국민총처분가능소득
5)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한·중 FTA 상생기금' 조정절차 밟나

과도한 기업부담 비판에
與, 재검토 카드 만지작

"상생협력 기금은 사실상 자발적 준(準)조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마련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연내 발효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해를 부탁했지만 물밑 반발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재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 조건으로 야당과 합의한 농어촌 상생기금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애초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기업이 이익 일부를 걷어 피해 농어촌에 지원하는 제도)의 대안이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기업의 '자유'가 포함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역이득공유제와 다름없는 데다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는 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와 차별성을 뒀지만 재계에선 사실상 의무적인 정부 정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연내 발효에 대한 부담감에 야당과 정치적 타협에 몰두, 기업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무성 당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정했다. 김 대표는 "한·중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한중FTA비준 하루 만인 1일 "피해보는 농어민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며 조정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비판이 예상됨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것이다. '선 처리 후 조정'인 셈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정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

화학물질관리 안전교육 32시간→8시간으로 준다

정부, 규제개혁 과제 개선안 발표
교육비용 등 약 35억원 절감 기대

유해화학물질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을 하고 있지만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고용해야하는 법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이 개선됨에 따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A씨처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대리점 역시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교육비용 등 약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부가 시행 1년도 안 된 법안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액상 유해화학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면 방류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더 세밀하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촉법, 효과적인 구조조정 가능
저신용자, 정책 서민금융이 맡아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330개 대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짓기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DSR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부채소득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기를 잡아 시행할 것"이라며 "급격한 하드랜딩(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에 다양한 예외를 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예외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대출목적이 단기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시했다.

그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촉법에 대해 그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한 유암코는 복수의 예비 투자대상을 고른 데 이어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실사·평가를 벌인 뒤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관련해 "어느 업체인지를 미리 공개하면 주식과 채권값 변화로 돈이 많이 들고 구조조정도 안 될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금융위는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천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27.9%로 낮추려는 논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부업체는 비용을 줄이거나 대출대상을 조정해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저신용자인 9~10등급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못 빌려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가지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완책에 대해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에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해선 "잘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만큼의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하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 인사, 성과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성과주의 모델을 만들겠으며, 이를 통해 민간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해 "경색은 아니지만만 양극화라는 부분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고 평가한 뒤 채권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문턱 넘은 법안…'유커 특수·고용 창출' 기대

관광진흥법·한중FTA 맞물려 1만65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5법 여야 이견… '연내 처리' 불투명

여야 의원들이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386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들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불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처리한 이들 법안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가 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안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등 5개다. 함께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공평과세' 등을 기본 방향으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관광의료 활성화…유커 특수·일자리 창출 효과

줄다리기 협상 끝에 여야가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이 법의 통과로 국내 시장이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국내 숙박 시장은 그간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숙박시설 건립과 연내 발효될 예정인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맞물릴 경우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부결돼 건립 대기 중인 호텔은 19개, 신규 추진 호텔도 8개다. 정부는 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과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과 200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달성되면 ▲최대 15조원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 환자 급증에 따라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의료 전문 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 등 후속 논의…정기 국회 처리 불투명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인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중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세제지원책도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됐다. 세제지원책은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연기 ▲주주가 자산 무상증여 시 양도에 관한 세제혜택 등이다.

다만 이번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원샷법 자체가 통과돼야한다.

원샷법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를 놓고 상임위가 논의를 중단한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 논의 후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원샷법이 통과될 경우 조선, 철강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이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기국회 안에, 노동 5법은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장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 일자리 69만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여야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이를 '연내 처리'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연미란 기자 actor@

청년희망재단 '청년 일자리 사업' 본격 가동

인문계 출신, 게임 기획자로 키운다

문화 관광 통역사 양성 등 구성 30명씩 선발… 교육·취업 지원

청년희망재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스타트업과 청년의 취업알선, 문화 관광 통역사 양성, 모바일 게임 기획자 양성으로 구성됐다.

청희재단은 업계와 구직자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1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7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청희재단은 이달부터 스타트업의 구인 수요를 내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매칭 행사를 시작하고 문화 관광 통역사와 모바일 게임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이달 30명씩 선발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청희재단은 모바일게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인문, 예체능등비전공자를 대상으로한기획자 양성 체계가 없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철주청년희망재단이사장(**사진**)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연결하겠다"며 "올해 청년글로벌보부상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청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갈길 먼 '박원순표 청년수당'… 법제처 제동

법제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서울시 "우리도 법률 검토해야"

박원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법제처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청년수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복지부도 "법무법인 2곳에서도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쪽의 법률 검토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옐런 "12월엔 금리인상" 한마디에… 금·석유값 동반 추락

"너무 늦추면 긴축정책 필요 금융혼란 커져 경기 후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의 TV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데 따라 하락했다. 옐런 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도 증시 하락에 일조했다.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12월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옐런 의장의 한마디에 국제 금값과 유가가 동반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통화금리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정책 정상화의 개시를 너무 오래 미룰 경우 추후 경제 과열을 막기위해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긴축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그러면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긴축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예기치 않게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과 물가 두 가지다. 연준은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물가가 기대치에 못 미쳐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연준은 중국 경제 등 외부 악재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전체적으로 지난 10월 이래 받은 경제, 금융 데이터가 고용시장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일치했다. 내가 지적했듯이 고용시장의 지속적 개선은 물가가 중기적으로 우리의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또 "낮은 국제유가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0.25~0.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의 잠재 물가상승률은 1.25~1.75%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긴하나 향후 몇년 후 연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출에서는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소비 경제가 강하고 전반적인 내수 경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혼란도 여름보다 줄었다"고 했다.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12월 회의 때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날 발언은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준은 오는 15~16일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은 10년만에 기준금리 제로 시대를 마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듯 옐런 의장의 발언 직후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에 대해 달러는 0.0015 달러 내린 1.0616 달러로 장을 마쳤다. 엔은 달러에 대해 0.36 엔 상승한 123.22 엔을 기록했다.

국제 금값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국제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9.7 달러 떨어진 1053.8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5일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국제 은값도 온스당 7.4 센트 하락한 14.009 달러에 거래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구리, 백금, 팔라듐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폭락했다.

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91 달러 하락한 39.94 달러로 떨어졌다. WTI의 배럴당 가격이 40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26일 38.60 달러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런던 국제 선물거래소(ICE)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장외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1.85 달러(4.2%) 내린 배럴당 42.59 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브렌트유의 장 마감가격은 배럴당 42.49 달러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다. 금값과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 강세 때 직격탄을 맞게 된다. 투자 수요·유동자금이 금보다는 달러화에 몰리고,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달러 외 화폐를 가진 투자자의 구매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매물 나온 야후, 누구 손에…

인터넷사업 매각 검토 소식에 이통사부터 사모펀드까지 들썩

인터넷 포털의 원조격인 야후가 핵심인 인터넷사업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사부터 사모펀드까지 관련업계의 공룡들이 들썩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야후의 인터넷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으로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미국 최대의 케이블TV업체 컴캐스트, 통신사 AT&T, 미디어 그룹인 인터액티브코프(IAC),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의 디즈니 외에 TPG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도 거론되고 있다.

야후 인터넷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광고사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야후 방문객이 미국에서만 매달 2억 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다음이다. 이런 사용자 수는 통신, 미디어 기업들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버라이즌은 야후 인터넷 사업을 인수해 자사 광고기술사업의 성장 촉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라이즌은 올해 6월 인터넷 콘텐츠 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을 약 44억 달러(5조여 원)에 인수했다. AOL은 제3자 웹사이트에 광고를 파는 데 특화돼 있다. 야후는 방대한 사용자 기록과 이메일 주소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버라이즌의 무선통신기술이 접목되면 구글과 페이스북을 위협하는 공룡이 태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AOL은 버라이즌에 인수되기 전에 야후와의 인수합병이 거론되곤 했다. 당시 AOL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팀 암스트롱이 현재 버라이즌에 남아 있어 합쳐진 야후-AOL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컴캐스트도 버라이즌과 마찬가지다. 현재 인터넷 동영상 광고의 지원 서비스를 다루는 프리 휠링 미디어와 TV광고를 담당하는 비져블 월드 등을 인수해 광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케이블TV 사업에 기반을 두고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AT&T는 야후의 데이터 풀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라이즌이 AOL 인수를 통해 노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AC는 생활종합정보사이트 어바웃 닷컴 등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어 야후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도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야후재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투자는 줄이는 한편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야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에게는 야후 인터넷 인수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다만 야후 인터넷 사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업체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잇다. 야후의 인터넷 광고사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경쟁사들에 밀려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야후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후는 2년 전 마리사 메이어를 CEO로 전격 영입하면서 부활을 꾀했다. 하지만 메이어 영입 이후에도 이렇다 할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美 LA 동부 총기 난사… 최소 14명 사망

2일 오전 11시 11분(현지시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쪽 한인밀집지역인 샌버나디노시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소총을 난사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인도 114년만의 폭우에… 현대차 "휴…"

첸나이에 지난달이어 또 비 쏟아져 현대차 현지공장 "시설 피해 없어"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에 114년만의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기업의 조업이 중단됐다.

3일(인도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첸나이는 전날 하루동안 345㎜의 강수량이 관측돼 12월 하루 강수량으로는 지난 1901년의 261㎜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1200㎜라는 기록적인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번에 추가 호우로 251명이 사망하는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 공항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의 피해도 잇따랐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정보통신(IT)기업들은 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첸나이가 속한 타밀나두 주는 인도에서 두 번째 가는 IT허브다. 첸나이는 또 미국의 포드차, 한국의 현대차, 일본의 닛산차 등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의 제조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업을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공장시설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도로가 대부분 물에 잠겨 종업원들이 출근할 수가 없고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도 곤란하다"며 "전날 하루 종일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조업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제품을 가공하는 포스코ICPC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긴급제품을 제외하고 생산과 제품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첸나이 가전제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출근을 자율에 맡기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00여 명에 이르는 한국 교민들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주첸나이 한국총영사관은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일 하루 교민 5가구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겪지 않은 주변 지인의 집으로 대피했다"며 "한인회와 협조해 침수 피해 교민들이 대피할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일 재난구호를 위해 타밀나두 주 정부에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3일 적절한 상황 대처를 위해 첸나이를 직접 방문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송병형 기자

'일선' 유통가 3세들, 새 전략 관심

신세계, 정유경 百총괄사장 승진
정용진과 '투톱 경영시대' 열어

주류업계도 세대교체 기류 동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분 총괄사장

유통업계가 연말 인사에서 3세경영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3세들을 부사장, 사장 등 경영 일선에 배치함에 따라 내년 3세들이 어떤 경영전략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3일 백화점 총괄 정유경 부사장을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정용진 부회장과 남매 투톱 경영 시대를 열었다. 정유경 사장은 1996년에 상무로 조선호텔에 입사했으며 지난 2009년에 신세계 부사장에 올랐다. 정 신임 사장은 경영능력이 검증된 3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호텔 시절 디자인 전공을 살려 룸키, 메모지 등 호텔의 소소한 소품을 직접 디자인한 정 사장의 노력은 이후 세계 100대 호텔 선정의 기반이 됐다. 신세계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SSG청담점 개점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 본점 등에 남성전용 명품관 유치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2면〉

주류업계도 3세로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전략본부장이었던 박태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박태영 부사장은 창업주 고(故) 박경복 회장의 손자이자 현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박 부사장은 2012년 4월 경영관리실장(상무)으로 경영수업을 시작한 뒤 8개월만에 전무로 승진해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아왔다. 박 부사장은 하이트진로의 지분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나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서영이엔티의 최대주주(지분 58.44%)이기도 하다. 하이트진로측은 박부사장이 하이트와 진로의 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순당도 3세 배상민 상무를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으며 보해양조 장녀 임지선 부사장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유업 계열 와인수입사 박소영 레뱅드매일 본부장도 김복용 매일유업 창업주의 외동딸인 김진희 평택물류 대표의 장녀다. 무학의 최재호 회장 아들 최낙준 씨도 지난 3월 무학에 입사하자마자 등기임원에 올랐다.

SPC그룹도 지난달 18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비알코리아 전무를 부사장으로 전격 승진시키며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차남인 허희수 전무는 이번 승진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3월 형과 함께 나란히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며 형제 경영시대를 예고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에 입사했다. 대부분의 2~3세들이 경영컨설팅 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감안할 때 2~3년 내에 아모레퍼시픽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지주사 역할·계열사 역량 강화 초점

한국타이어 그룹 정기 임원인사
이수일·김형남, 부사장 승진

이수일 부사장

김형남 부사장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대표이사 조현식)와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자로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2명의 상무와 1명의 상무보, 한국타이어는 2명의 부사장, 3명의 전무, 3명의 상무, 16명의 상무보, 계열사 아트라스비엑스는 1명의 전무와 2명의 상무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관련인사 17면〉

특히 이번 임원 인사에서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지주회사 역할과 계열사 역량 강화, 기술의 리더십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강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타이어의 중국지역본부장인 이수일 부사장은 중국 시장의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마케팅과 세일즈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특히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타이어의 연구개발본부장 겸 구매부문장인 김형남 부사장은 혁신적인 구매 시스템과 조직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6년에 새롭게 완공되는 신축 중앙연구소를 포함한 R&D 시스템과 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2016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기술의 리더십 경영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 가치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 거제에 2000억 투입 해양리조트 건설

424실 규모 2018년 7월 개장

한화그룹이 경남 거제시에 2000여억원을 들여 전용 마리나 시설을 갖춘 신개념 고급해양리조트(조감도)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424실 규모로 2018년 7월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리조트 건설이 완공되면 향후 20년간 운영단계에서 약 1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13번째 리조트로 탄생하게 되는 프리미엄급 거제리조트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일원 3만4000평 부지에 만들어진다. 거제지역의 명물인 흑진주 몽돌해변을 프라이빗 비치(beach)로 배치해 휴양객들의 편의성과 독립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해안 산책로와 바다를 바라보는 인피니티풀과 스파시설 등 자연 친화적 해양리조트의 모습을 선보인다. 특히 리조트 자체의 전용 마리나를 건설해 주변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요트 투어를 떠날 수 있는 복합 럭셔리 휴양 시설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오는 4일 거제시와 함께 리조트 신규건설사업을 골자로 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는다.

한화그룹이 주도하에 개발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개장 예정이다. 이번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거제시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 4414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건설단계에 2586명, 향후 20년간 운영단계에는 약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02억원의 소득과 1558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핵심제품 개발·신사업 발굴 공로자 발탁

삼성, 임원 인사 관전 포인트
승진규모 300명 안 넘을 전망
주력사업 후속교체 뒤따를 듯

4일 삼성 임원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 이어 4일 후속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 후속 임원인사의 기본 방향은 사장단 인사의 기조인 '안정 속 점진적 세대교체'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은 앞선 사장단 인사에서 총 15명(사장 6명, 부사장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심인사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을 무선사업부장 사장으로 발탁하는 등 주력사업 리더를 교체했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사장단 인사에 따른 후속 교체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또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핵심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에 공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의 실적이 부진했던 점에 비춰 이번 인사에서 임원 승진 폭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임원인사 승진 규모가 3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년보다 20% 이상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핵심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에 공이 있는 임직원엔 과감한 발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력사업 리더 세대교체에 따른 후속 교체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정부도… 재계도… '스킨십 경영'으로 돌파구 찾는다

현대자동차
'안티팬과의 만남' 열고 차량 불만 두고 난상토론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영진과 '안티팬'들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대화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소통경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고객 체험형 매장인 오토스퀘어와 자동차 문화 공간을 표방한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으로 국내 고객과 스킨십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신설해 반(反)현대차 고객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곽진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이 고객·경영층 직접 소통 프로그램 '마음 드림(Dream)'에서 대표적인 안티카페 '보배드림' 회원들을 초청해 현대차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김충호 사장과 권문식 부회장이 각각 고객들을 초청해 이 행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를 표적으로 삼는 안티팬들과 경영진이 만나는 것은 곽진 부사장이 처음이다.

'보배드림'은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이자, 현대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일부 안티팬들은 현대차를 '흉기차'라고 부르면서 현대차를 비하하는 일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경영진은 이번에 직접 안티팬들을 만나 현대차를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고 불만 사항 등을 접수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소통 프로그램 '마음 드림' /현대차

현대차는 행사 당일 오전 남양연구소 투어, 파이롯트 센터와 품질확보동 등 핵심 파트를 견학시키고 차량 정면 충돌테스트 관람, 주행 테스트장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녁부터는 곽진 부사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참가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로도 가능하다. 참가신청 시 현대차에 바라는 사항, 불편·불만사항 등을 기재하면 간담회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많은 질문과 쓴소리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진솔하게 답변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향후 디자인 총괄 피터 슈라이어 사장 등 각 부문의 대표 경영진과 고객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해운업 불황 극복을 위한 선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여개 국적선사 사장들과 슬기로운 체질개선 당부

정부가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양대 해운업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롯해 국내 주요 선사들은 장기불황으로 사상 최악의 불황 위기를 겪고 있다. 해운업계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부터 시작됐다.

해수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석 장관이 주재하는 선사 간담회를 열어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현대상선 이백훈 사장 및 흥아해운 등 한국선주협회 소속 20여개 선사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해운업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선사들 역시 불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국적선사들도 비경제선 매각, 다단계 용대선 정리 등을 통해 시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재의 해운 시장 상황을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로 평가하는 한편 중국의 성장 둔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단기적 시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불황기의 안정적 선박 발주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선사의 시황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해운시황 종합정보망과 해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임선도거래 시장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운임 인하 등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해운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운임 공표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공표운임의 적절성 및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선사 대표들은 "해운업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다양한 자구책을 추진하겠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정부가 조선업계는 돕고 해운업계는 외면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4조2000억원이라는 대우조선 해양 자금 수혈 등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반면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선사 대표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권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후선박 교체 등으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종별·업종별 업황에 따른 선박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양성운 기자

中 비철금속 감산 전망… 국내기업엔 '藥'

가격 오르면 수익성 좋아져

원자재 가격 추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금속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비철금속의 최대 생산자인 중국의 구리, 니켈, 아연 생산 업체들이 연이어 감산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중국 아연생산업체 10곳이 2016년 생산량을 50만톤 줄인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27일 중국의 8개 니켈 생산업체들은 12월 니켈 생산을 1만5000톤 감산하고 2016년도 생산은 최소 20%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중국의 10대 구리제련 업체들은 내년 구리 생산을 지난해 중국 전체 구리 생산의 4.4% 수준인 35만톤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20만톤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중국은 자국내 원자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금속 채굴 능력을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속의 최대생산자이자 최대소비자가 됐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해 원자재를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금속 생산자들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비철금속 최대 생산자인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비철금속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지난해 4분의 1가량 평균 임금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비철금속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최근 골드만삭스의 2016년 신흥시장 분석 결과, 내년엔 금속 업체들이 원유 업체들보다 더 큰 가격 하락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중국 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금속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가솔린 엔진 안부럽다" 신형 K5하이브리드 첫 선

기존보다 19~47만원 가격 낮춰 기아차 '연비·성능' 두토끼 잡기

기아자동차는 3일 스포티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성능을 가솔린 모델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 자동 개폐 시스템과 전면부 에어커튼 등을 적용해 공기저항을 줄였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효율적인 회생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를 적용해 연비를 17.5㎞/L(공동고시 신연비 기준)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효율성이 탁월한 병렬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전용 2.0 GDI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56마력(ps), 최대토크 19.3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신형 K5 하이브리드 가격은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은 기존 제품 대비 36만원 낮아진 2824만원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 모델은 기존 대비 47만원 낮아진 2937만원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은 19만원 낮아진 3139만원으로 가격이다. 이 가격은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후 판매 가격이다.

/양성운 기자

기아자동차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미디어발표회 겸 시승회를 열고, 스포티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했다. /기아차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동부대우전자
2015 핀업 디자인어워드 수상

동부대우전자는 자사의 신제품들이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및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번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마트 쿨링 냉장고로 은상을, 공기방울 4D 세탁기와 클래식 전자레인지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쉐프 시리즈 전자레인지, 24인치 드럼세탁기, 미니 스탠드 김치냉장고 등의 제품은 가전제품 디자인에서 인증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은상을 수상한 240L 스마트 쿨링 냉장고는 냉장고 양측면을 유선형으로 마감처리하는 '다이나믹엣지'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동상을 수상한 '공기방울 4D세탁기'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독창적인 '4U' 디자인을,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는 부드러움을 강조한 곡선 모서리에 은색 도어손잡이, 조그 다이얼등을 채용, 친숙한 레트로 디자인을 구현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동부대우전자 모델이 '2015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동상을 수상한 '더 클래식 전자레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

p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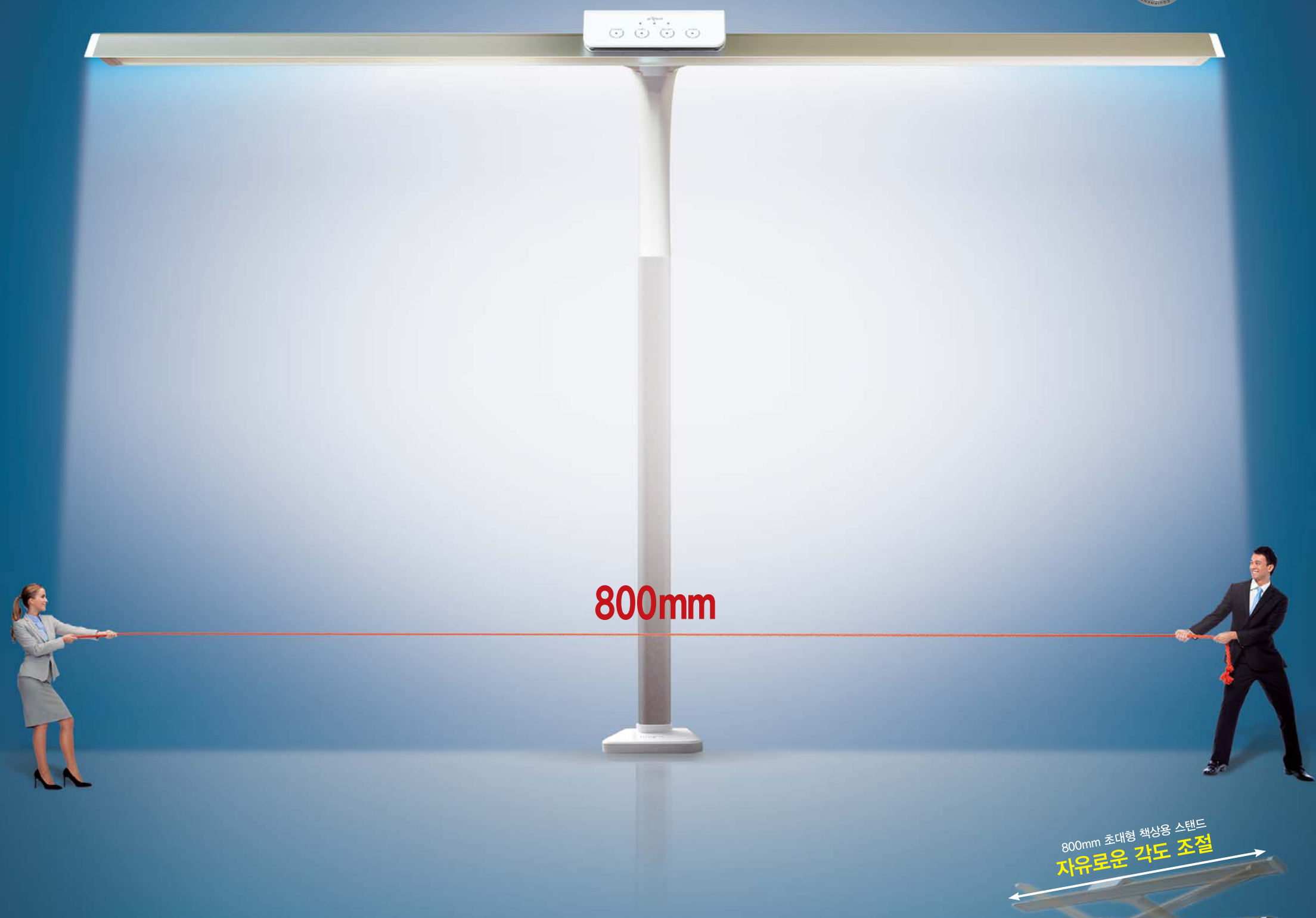
LED 스탠드 전문기업(주) 프리즘®
www.prismlight.co.kr

스케일이 다른 스탠드!

800mm 초대형 사이즈 책상용 스탠드!!

BROAD WING
LARGE SIZE LED DESK LAMP / PRISM DESK LAMP SERIES / ECO FRIENDLY ENERGY

EMC Registered



800mm 초대형 책상용 스탠드
자유로운 각도 조절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신제품 출시 특별판매가 | 브로드윙 : ₩66,000X3 (카드 무이자 3개월) | 24시 무료 주문전화 | 080·570·2222 www.arambi.kr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4-서울중구-0505호 ■ 상호명 : (주)람비 ■ 대표자 : 최은희

카카오 '맞고' 출격… 규제 넘어 매출 반전 이룰까

카카오 게임하기 '보드게임존'신설
애니팡맞고·맞고의신 등 7종공개

국내 모바일게임 판도 변화 기대
상대방 선택금지 등 규제가 관건

카카오게임 보드게임존. /카카오

카카오가 자사의 게임 플랫폼을 통해 보드게임 진출 신호탄을 쐈다. 업계는 이들 보드 게임이 회원 수 수천만명의 카카오 소셜 기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 '규제' 이슈에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맞고' 등 모바일 보드게임에 진출했다.

지난 1일 카카오 게임하기에 '보드게임존'이 신설되고 애니팡맞고(선데이토즈), 프렌즈맞고(엔진), 맞고의신(조이맥스), 장기2.0(모노폴), 인생역전윷놀이(컴투스), 매직캣스토리:퍼즐여행(넷마블게임즈), 퍼즐젤리팡(소젠게임즈) 등 7종의 보드게임이 공개됐다.

보드게임이란 포커나 고스톱과 같은 게임을 일컫는 말이다.

게임업계가 카카오의 보드게임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 게임이 회원 수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카카오의 강한 소셜기능과 시너지효과를 낼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맞고 게임의 경우 특성상 게임룰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고 타깃 연령층도 50~60대까지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고게임 등이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과 시너지를 낸다면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일변도인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 규모가 예전 같지 않은 카카오가 이들 게임을 계기로 반전에 성공할 지도 주목된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카카오의 보드게임 시장 진출로 전체적인 모바일 보드게임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다운로드 트래픽 성장과 매출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개발사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안 애널리스트는 "맞고류는 이미 네오위즈게임즈의 '피망뉴맞고'와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신맞고'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현재 구글앱스토어에 출시돼 있는 고스톱류가 70여 종이 넘어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혜는 카카오와 일부 개발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는 다수의 게임이 출시되고, 장르가 다변화될수록 트래픽 증가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보드게임 출시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보드게임 1~2개의 매출은 크지 않겠지만, 이번에 출시된 7종의 게임과 내년에 추가로 출시될 포커류와 기타 보드류 게임은 카카오 전체 게임하기 매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드게임 진출로 전망은 밝은편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이다.

카카오라는 대형 소셜 플랫폼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얽히고설킨 보드게임 규제 탓에 제대로 된 소셜 기능을 활용할 수 없어서다.

'상대방 선택 금지'(유료게임머니 이용시) 조항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쉽게 말해 카카오 친구들을 지정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웹보드 게임이 한창 유행할 당시 이런 방식으로 '판돈 몰아주기' 등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페이 탑재 '갤럭시A' 시리즈 공개

삼성전자
화면크기 별 'A7'·'A5'·'A3'
모바일 결제·카메라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디자인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와 강화된 카메라 성능을 갖춘 '갤럭시 A(2016)'를 3일 공개했다.

2014년 말 첫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의 모델인 갤럭시A(2016)는 화면 크기에 따라 5.5형 '갤럭시 A7', 5.2형 '갤럭시 A5', 4.7형 '갤럭시 A3' 등 3종으로 출시됐다.

갤럭시 A(2016)는 글래스와 메탈을 조화시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디자인 콘셉트를 계승하는 한편 전작보다 베젤(테두리)이 더 얇아져 보다 몰입감 있는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은 지문인식 센서와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탑재해 강력한 보안성과 범용성을 갖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갤럭시 A(2016)는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에 모두 조리개값 F1.9 렌즈를 탑재했다.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은 후면 카메라에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적용하는 등 카메라 성능을 강화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최적의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화각을 넓혀 여러 명을 동시 촬영할 수 있는 '와이드 셀피', 사용자의 손바닥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팜 셀피', 피부 톤과 눈 크기 등을 조정하는 '뷰티 이펙트' 등 편리하고 재미있는 전면 카메라 기능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갤럭시 A(2016)는 블랙,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4종의 색상이 있다. 12월 중순 중국을 시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결합상품 선택시 유료방송·인터넷 고려"

KISDI
결합상품 가입률 매년 상승
시장 지배력, 유선이 더 커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결합상품.

소비자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때 이동전화보다는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년 미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비스는 유료방송(36.9%)과 초고속인터넷(36.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20.1%, 집전화는 6.1% 였다.

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의 5000여 가구, 만 6세 이상 가구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합상품에 가입한 이유로는 '저렴한 요금이나 높은 할인율'(5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가입 시 선물이나 경품 등 혜택'(13.9%),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10.3%)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률은 상승하는 추세다. 2011년 34.7%에서 이듬해 34.3%로 주춤했다가 2013년 37.5%, 지난해 40.1%, 올해 44.2%로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배력 전이가 어떤 서비스에서 비롯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10월 중순 '방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와 시장 지배력 전이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결합상품의 핵심 서비스가 초고속인터넷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당시 ETRI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고착 효과는 이동전화에서보다 초고속인터넷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모두의퍼즐펫' 42개국 동시 출시

넷마블게임즈
국내 포함 亞·메나서 선봬
내년 유럽·북미 공략 고삐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퍼즐게임 '모두의퍼즐펫(개발사 퍼니지)'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메나(중동·북아프리카)지역 등 42개국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모두의퍼즐펫은 퍼즐로 외계인에게 납치된 귀여운 아기동물을 구출하는 게임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3매칭 방식(3개 블록 맞추기)에 터치로 블록을 터뜨리는 방식을 결합해 한 단계 진화한 게임성을 보여준다.

130개 스테이지는 '펫 구출', '몬스터 제거', '블록 제거' 등 게임 세계관에 기반한 다채로운 미션이 있어 이용자는 지루할 틈 없이 퍼즐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블록을 옮기고 터뜨리면서 아기동물을 구출하는 미션과 블록으로 몬스터를 가격해 퇴치하는 미션은 기존 퍼즐게임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타격감과 전략성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에 연동하면 친구와 하트교환, 점수대결 등이 가능하다.

모두의퍼즐펫은 넷마블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쉽지만 독특한 전략성, 특색있는 캐릭터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인 게임이다. 올해 아시아 지역을 공략한 후 내년에는 유럽, 북미 지역 공략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넷마블은 모두의퍼즐펫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50레벨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지급하며, 페이스북 친구 20명 이상을 모은 이에게는 '라인프렌즈 피큐어세트', '카카오 무지 낮잠쿠션'을 추첨으로 증정한다. 이외에도 '모두의퍼즐펫'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1만 명 달성 시, 추첨을 통해 게임재화, 커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정문경 기자

'토종게임' 인도 시장진출 돕는다

한콘진·삼성전자
'2015 타이젠 워크숍' 후원
현지서 국내업체 9곳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국내 게임업체들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 수립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3~4일 인도 뱅갈로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인도 타이젠(TIZEN) 워크숍'을 후원한다.

인도 현지 유일의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퍼니즌솔루션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을 현지에 초청해 인도 모바일게임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대형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위메이드를 비롯해 파라노이드조이, 이디오크러시, 마상소프트, 오락INC, 루노소프트, 레드사하라, 2ACE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를 포함한 중소 게임사 등 모두 9개 업체가 참석한다.

첫날에는 인도 게임 시장의 특수성 및 오프라인 시장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 공략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삼성전자의 인도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Z' 시리즈의 마케팅 전략과 함께 삼성전자가 자체개발한 운영체제(OS) 타이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국내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행사는 게임 블루오션인 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KT
온라인 쇼핑몰 '올레샵' 개편
고객맞춤상품 추천코너 신설

KT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올레샵'을 고객에게 더 친화적인 사이트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오픈 5주년을 맞이한 올레샵은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월평균 50% 증가하는 등 통신 전문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KT는 올레샵 메인 페이지에서 모든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고, 통신 상품부터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고객별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코너를 신설했다. 우수 대리점의 기획전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리점 기획전 코너를 새로 마련하고 액세서리 코너를 개선해 신상품과 금주의 인기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IT) 기기부터 생활용품, 외식 상품권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기상품을 할인해 제공하는 '땡스딜' 서비스를 모바일 올레샵에 이어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문경 기자

금융권 멀어진 '비트코인', 한발 다가선 '블록체인'

외환·송금서비스 블록체인 도입 검토
비용 절감↑·해킹 방지 등 보안 탁월

신한·KEB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외환, 송금 서비스 등에 속속 '블록체인(Blockchain)'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송금 시 중개 과정이 생략돼 결제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은 해킹 방지 등 보안 면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이 핀테크(금융+기술)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란데 동의한다.

다만 국내은행권이 글로벌 공동 블록체인(R3CEV)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프라 구축과 협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핀테크기업 코인플러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기술 관련 국내 최다 특허(총 12건)를 보유한 금융플랫폼 개발 핀테크 기업이다.

공공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빠른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스트리미와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 인증체계·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에 근간한 해외송금 서비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기술을 실제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 내부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은행권도 공동 인프라 구축과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을 경계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블록체인은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9월 모건스탠리,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22개 글로벌 은행은 'R3CEV'와 제휴,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과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 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은행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송금 등 금융거래 이외에도 주식, 채권, 부동산 거래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규제 및 법적 체계(framework)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반대로 규제 증가가 블록체인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4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을 웃돈다. 반면 핀테크 투자는 50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둔화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아시아태평양&대한민국 최우수상' 수상

KEB하나은행은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더 뱅커(The Banker)'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2015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은행상'과 '201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이클 뷰익(Michael Buerk) 영국 BBC 저널리스트(사진 왼쪽부터), KEB하나은행 마케팅그룹 김정기 부행장, 스테파니아 팔머(Stefania Palma) 더 뱅커지 아시아 에디터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윤종규 회장 "KB 위상 위한 '소통' 중요해"

취임 1주년 'CEO와의 대화' 나눠
직원들과 도시락 함께하며 소통

윤종규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경영철학과 비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KB금융그룹은 3일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윤종규 회장과 그룹기자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세 번째 '그룹 CEO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새롭게 그룹기자단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도시락을 함께하며 윤종규 회장이 지난 1년간 소회와 각오를 직원들에게 말하는 시간에 이어 KB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문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윤종규 회장은 "넘버원 KB의 위상을 회복을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그룹기자단들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그룹 내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룹 CEO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CEO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아이디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는 등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그룹 전 직원이 공유하는 인트라넷에 'CEO와의 대화' 코너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과의 만남 현장과 소통내용을 사진과 글로 공유하고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등 '리딩금융그룹 위상회복'의 꿈을 함께 꿈꾸고 소통하며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그룹 CEO와의 대화'에서 그룹기자단으로 선정된 70명의 KB금융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계좌 변경·해지 28만건… 아직은 순풍?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이용객 접속 꾸준한 실적 보여
초기지만 안정적 서비스 운영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동안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이는 하루평균을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이 접속해 자동이체 변경 6100여건, 해지 6600건 정도 신청한 셈이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에 한 달간 접속자 수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접속했다. 시행 첫날인 10월30일에는 11월30일까지 전체 접속 건수의 43.1%인 21만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첫날 변경은 전체의 17%(2만3000건), 해지는 39.3%(5만7000건)였다.

개시일 이후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11월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결제원은 설명했다.

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에도 2009년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올해 10월까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건수는 8만7000건 수준으로 전체 계좌대비 이용률은 0.12%에 불과하다. 한 달간 국내 계좌이동서비스 이용률은 0.23%에 달한다.

회원가입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1~3분 내외로 짧다.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문영석 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 팀장은 "현재는 국민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목적으로 페이인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원은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제원은 내년 1분기 내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외에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방식의 인증시스템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인포 변경·해지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은행별 계좌이동 실적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는 계좌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은행별 실적을 공개할 경우 은행별 경쟁에 대한 '미스 리딩'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워밍업 단계여서 은행간의 명암은 2~3개월은 지나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흘동안 방문객 10만명 육박
첫날 6만명·매일 2만명 접속해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방문한 사람이 사흘 동안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을 연 보험다모아에는 2일 자정까지 모두 9만8210명이 접속했다.

특히 첫 날에는 약 6만 명이 사이트를 찾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에도 하루에 2만 명가량 접속했다.

보험다모아에는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단독실손의료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여행자보험 등 6종의 보험 217개 상품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검색 비율로는 39.7%를 차지했다.

보장성보험은 암·질병·종신·상해 등 9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는 등 취급 상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별도의 하위 카테고리가 없는 단일 종류 보험임에도 18.1%로 검색순위 2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단독실손의료(14.4%), 저축성(12.4%), 연금(11.8%), 여행자(3.6%) 보험 순으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속자의 59.3%는 PC를 사용했고, 40.6%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둘러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호텔롯데 상장 성큼… 일본 롯데 홀딩스 "신동빈 지지"

액면가 500원으로 낮춰
소액 투자자 접근성 확대와
일본계 지분율 희석 기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호텔롯데 본사. /호텔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60%의 지지를 얻어 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기업 상장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주주 지분의 의무보호예수(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호텔롯데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상장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따라 상장 걸림돌은 대부분 사라졌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액면가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홀딩스 주주 60%, "신동빈 회장 지지한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60%가 "신동빈(60) 회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절대 지지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호텔롯데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측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롯데 측은 주주들이 지지 확인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확실히 종식하고, 신 회장이 그룹의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롯데는 "신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배구조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 롯데의 주요 개혁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리아세븐 등 다른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상장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약 84%를 해소했으며,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 계열사에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한국거래소에도 이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대주주 지분의 의무 보호 예수 문제 등 상장 걸림돌로 꼽혔던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부담을 덜게 됐다. 보호예수(상장 후 5% 이상의 대주주는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됨) 문제는 완화 방침으로 굳혔지만, 정작 일본 측의 확실한 지지가 없다면 호텔롯데를 상장시키는 데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최근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를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L투자회사 등 사실상의 자회사들을 통해 호텔롯데의 의결권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호텔롯데 액면가 500원짜리 국민주로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와 '일본계 지분율 희석'이라는 두가지 효과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황제주'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겠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신 회장의 지배구조를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거듭나려면 소액 주주 참여가 필수적인데 액면가가 500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고가주 상장사를 방문, 아모레퍼시픽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액면분할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22일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이후 개인투자자 거래량이 급증했다.

롯데 측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외에도 코리아세븐 등 다른 계열사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신 회장은 순환출자 해소 84% 완료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 확보, 기업문화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 롯데의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국민기업으로 다가서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증가할 듯

⓮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국내차 업계 호재?

해외 경쟁사 比 우위
신흥국 리스크 관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겪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같은 기간 24.7% 판매가 급감하며 후폭풍을 겪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겪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지난달에만 판매가24%이상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같은 기간 10만5000여대를 팔며 11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월 판매 대비 7.1% 성장한 것으로 GM(+1.5%), 도요타(3.4%), 크라이슬러(2.9%) 등 미국 시장 상위 업체 증가율을 웃도는 기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시장 성장률인 1.6%도 크게 상회했다.

내년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도 현대·기아차에게는 긍정적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만큼 추가적인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SUV 위주의 판매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판매량 급감사태로 인해 기저가 낮고, 구매세 5% 인하정책이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6% 이상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유럽, 인도, 한국 역시 신차 위주의 자동차 판매 증가 여력이 있어 보인다.

올해 부진했던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자동차 시장은 특단의 정부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조한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시장에서 올해 낙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내년 낙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3% 초반의 성장 가능해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가 있어 보인다. 올해 많은 신차가 출시됐고, 신차에 대한 평가 또한 좋아 판매에 집중하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년 환율과 신흥국 리스크가 여전히 관건이지만 폭스바겐, 혼다, GM 등 주요 경쟁사들이 올해 대규모 리콜을 경험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는 바람에 현대·기아차가 어부지리(漁父之利) 얻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대·기아차의 내년 글로벌 판매는 830만대로 올해보다 4%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2팀 팀장(이사)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D 간 연계가 경제협력·활성화 중요 기반"

〈증권중앙예탁기관〉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ASIFMA 2015 연차회의' 참가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두번째)이 '증권시장인프라 연계세션'에서 패널로 참가해 아시아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유재훈 사장이 지난 2~3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2015 연차회의'에 참가했다고 3일 밝혔다.

ASIFMA는 아시아 자본시장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등 75개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ASIFMA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유 사장은 이날 '증권시장 인프라 연계세션'에 패널로 참가해 아시아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연계·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증권시장 후선업무의 중심인 증권중앙예탁기관(CSD) 간 연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협력과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국민연금기금, 27년 만에 500조 돌파

해외투자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
국회예산처 "수익보다 안정 중요"

국민연금기금 '500조원 운용 시대'가 열렸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2015년 9월 현재 500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금운용규모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07년 200조원에 도달했고 2010년에는 324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11년 348조9000억원, 2012년 392조원 등으로 급상승해 2013년 426조9000억원으로 400조원대로 뛰어올랐고 2014년에는 469조8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622조4000억원이 조성됐는데, 이중 122조2000억원을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가 394조8천억원이고, 기금운용 수익이 227조6000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금규모가 불어나면서 해외로 투자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나선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그때 전체 기금의 0.1%인 1천억원으로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투자규모를 계속 확대했다. 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자산 496조2000억원 중에서 해외주식에 64조3000억원(13%), 해외채권에 20조5000억원(4.1%) 등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2014년 20%에서 2019년 2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을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지나치게 수익만을 좇는 데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동을 걸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야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국민 노후자금이자 일종의 국가채무라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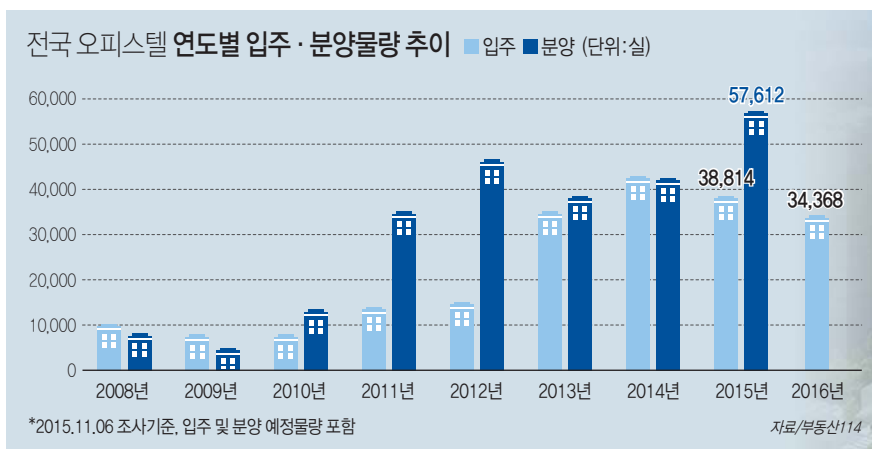
공적연금 운용의 기본원칙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비회수기간이 긴 대체투자는 채권·주식 등 전통적 투자자산과 다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있기에 투자에 앞서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호 기자

노후 대비 '제2의 월급통장'… '오피스텔' 대박행진

'수익형 부동산' 투자상품 주목
배후수요·입지·인프라 다 갖춰
적은 자본에 안정적 수익 확보

송파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완판 행진에 웃돈까지 붙어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OO(47)씨. 그는 지난 9월 송파 문정지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한 채를 계약했다. 최근 이곳이 문정 법조타운 조성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 안정적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 웃돈도 쏠쏠하다는 소문에서다. 최근 계약 단지 주변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500만~2000만원의 웃돈까지 붙었다. 그는 "기대 하지 않았던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1%대를 유지하면서 수익률이 낮은 은행예금보다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배후수요와 입지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 외에도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를 위한 제2의 월급으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나 불안한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총액은 3조963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다. 지난해 3조2575억원에 비해서는 21.6% 늘어난 금액이며 종전 최고치였던 2011년 3조8366억 원보다도 1000억원 이상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실거래가 총액이 1조7446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44.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서 분양됐던 오피스텔들은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우수한 청약결과를 거뒀다. 법조타운조성, 동남권유통단지·지하철역 개통 등 대형 개발호재가 많았던 송파 문정지구에는 올해 하반기에만 3000여 실의 공급 물량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분양한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619실)'를 비롯해 한화건설의 '문정 오벨리스크(423실)' ,현대산업개발 '문정아이파크(634실)' 등이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프리미엄(웃돈)도 형성됐다.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송파파크하비오 전용면적 58㎡는 웃돈이 1500만원 가량 붙어 3억8000만원, 내년 10월 입주예정인 '문정 엠스테이트' 전용 29㎡는 웃돈이 500만원 붙어 현재 2억280만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내년말 완공되는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 법조타운 역시 2017년 입주 예정이 다가오면서 문정동 일대가 살아나고 있다"며 "현재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의 경우 200만~1500만원까지 웃돈이 형성됐고 공실률 또한 줄어드는 분위기로 향후 문정지구가 조성되는 2017년에는 서울강남과 경기남부를 이어주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액 투자 상품을 찾는 수요자들로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명건설은 9700여개의 기업체가 있어 16만2000여 명의 배후 수요가 확보되는 지하철 1·7호선 더블역세권인 가산디지털 3단지에 '가산 대명벨리온'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 전용 16~30㎡ 585실 규모로 지어진다. 원룸 뿐만 아니라 넓은 생활공간을 갖춘 2면 개방형 투룸 15실이 제공돼 선택의 폭이 넓다.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 에어컨(천장 매립형), 가스쿡탑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관과 지하주차장에는 외부인 통제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은 물론 로비와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오피스텔에서 안양천 공원이 가까우며 가리봉 패션 로데오거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대형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을 비롯해 은행과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한 저층부의 상가가 많아 생활 편의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업체 함스피알 함경남 대표는 "올해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시장으로 수요자가 많이 몰렸다" 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은행금리 대비 수익률은 꾸준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GS건설, 7600억 바레인 LNG 터미널 수주

공사기간 32개월… 2018년 운전
완공시 하루 226억만 l 가스 공급

바레인LNG프로젝트 위치도. /GS건설

GS건설은 바레인 'LNG W.L.L'이 발주한 약 7600억원 규모의 해상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바레인 수도 마나마 동쪽 히드산업단지로부터 4.3km떨어진 해상에 LNG선, 부유식 원유 저장 선박 접안시설과 LNG 기화 설비를 설치하고 해저 파이프라인·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GS건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바레인 LNG W.L.L의 EPC파트너로 참여해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2개월로 2018년 7월 상업 운전 예정이다.

바레인은 LNG 공급을 통해 자국 내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2018년 7월 바레인 내 첫 번째 LNG 터미널인 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하루 최대 약 226억 5000만 l 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하루 LNG 사용량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허선행 GS건설 플랜트 부문 대표는 "여러 플랜트 분야 해외투자사가 GS건설의 경험과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해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EPC파트너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수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롯데자산개발, 뉴스테이 산업 본격화

"2020년까지 8000여 가구 공급"

도심지역 임대시장 안정화 기여

롯데그룹의 부동산 디벨로퍼인 롯데자산개발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 롯데자산개발은 2020년까지 서울 도심지를 중심으로 8000여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 트렌드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나온 정부정책에 발맞춰 도심지역의 임대시장 안정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신개념 주거서비스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자산개발은 도심역세권을 중심으로 200~400가구 규모의 고밀도 주거복합형 뉴스테이를 선보인다. 특히 서울 도심에 근무하는 20~30대 직장인 또는 인근지역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임차 실수요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2018년까지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한 가산동(400여 가구) ▲경전철,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 인근 신설동(오피스텔 약 240여 실) ▲경전철,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동소문동(200여 가구)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 문래동(아파트 500여 가구) 등에 3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이후 2020년 마포와 강남, 송파 지역 등에 약 5000여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등 서울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1000만원 돌파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 주도
평균 1038만원… 역대 최고치

올해 전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3.3㎡당 평균분양가가 1000만원을 돌파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01만원으로 2009년 1075만원 이후 6년만에 1000만원 고지에 다시 올라섰다. 지난해 분양가 평균은 941만원이었다. 분양가 상승은 광역시가 주도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3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29만원을 기록한 2008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고가의 중대형 주택이 많이 공급된 부산이 분양가 상승의 '1등 공신'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들어서는 '해운대엘시티더샵'은 전용면적 144~244㎡의 3.3㎡당 분양가가 2900만~3070만원 수준이었다.

'해운대센텀 경동리인', '해운대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등도 지역 평균 분양가에 비해 비싼 3.3㎡당 1300만~1700만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울산에서는 '대현더샵 1·2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200만원였던 것을 비롯해 '중구 복산아이파크' 1100만원대, '약사더샵' 1400만원대 등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9곳, 울산 7곳, 대구와 창원에서 각각 2곳의 아파트가 평균 분양가가 높은 지방 20개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140만원으로 지난해 1202만원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주택시장을 불투명하게 보는 전망이 늘어난 점, 지역 평균 수준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단지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길기자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상가 분양

한화건설
지하 1층 16실·지상 1층 36실 구성
넓은 전용면적…공간 활용 극대화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상가 투시도.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업4블록에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상가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20층 3개동, 444가구 규모로 이뤄진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상가시설은 지하 1층(16실)과 지상 1층(36실) 40~73㎡ 52개실로 구성된다. 스트리트형 상가로 배치해 주상복합 단지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가는 레스토랑, 은행 등의 상업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높은 전용면적(전용률 지하 1층 58.9%, 지상 1층 54.5%)을 확보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상가와 가까운 구파발역 인근은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은평뉴타운 1만6000여 가구의 입주자들을 포함해 연 평균 865만명의 북한산 등산객이 구파발역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은평뉴타운은 상가 비율이 2.6% 수준에 불과해 부족한 상황이다.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은 반경 1km 이내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15만9759㎡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이 내년 들어설 예정이다. 또 16층 800병상 규모의 은평 카톨릭대학병원이 2018년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970(진관동, 은평소방서 옆)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주류업계, 연말 대목에 신제품 '우르르'

왼쪽부터 아영 FBC의 '폴마쏭', 국순당의 '백세주마을 모주',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

시즌 한정제품·다양한 이벤트 등 업계간 치열한 고객 잡기 경쟁

주류업계가 연말 대목을 맞아 신제품 출시와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단순한 신제품을 내놓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말에만 선보이는 한정메뉴부터 주류를 이용한 요리강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중이다.

국순당이 운영하는 전통주 전문주점 '백세주마을'은 3일 '모주(母酒)'와 '溫(온) 예담' '熱(열) 백세주' 등 따뜻한 술메뉴를 한정 출시한다고 밝혔다.

따뜻하게 데운 전통주는 추위로 긴장된 몸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끓이는 과정에 알코올이 휘발되기 때문에 도수가 낮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모주'는 국순당 쌀막걸리에 고흥유자를 첨가한 '고흥유자모주'와 꿀과 생강을 넣어 끓여서 만든 '꿀생강모주' 등 2종을 선보인다. '溫(온) 예담'은 전통 청주인 예담을 데운 것이다. '熱(열) 백세주' 는 기존 백세주를 따뜻하게 데워 12가지 한약재의 풍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으며 따끈한 한방차를 음용하는 느낌을 준다.

롯데주류는 지난 1일 순하리 유자, 복숭아, 그린의 뒤를 이어 '순하리 처음처럼 사과'를 내놨다. 사과 과즙이 첨가된 소주 베이스 칵테일로 순하리 유자, 복숭아, 그린의 뒤를 잇는 순하리 시리즈의 네 번째 제품이다. 기존 순하리 제품들(14도) 보다 도수를 2도 가량 낮춰 사과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의 프리미엄 에일맥주 '퀸즈에일' 엑스트라 비터 리미티드 에디션(500㎖, 캔)은 연말을 겨냥해 겨울시즌 동안만 한정 판매된다. 에일맥주는 가을 겨울 시즌에 즐기기 좋은 맥주다. 하이트진로는 이같은 강점을 내세워 한정 판매라는 영업방식을 도입했다.

배상면주가는 일명 쌀맥주를 출시했다. 쌀과 홉으로 만든 '라이스라거 R4(알포)'는 맥주의 청량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술이다.

강좌를 통해 고객잡기에 나선 주류기업도 있다.

아영 FBC는 폴마쏭 뱅쇼 클래스를 개최한다. '뱅쇼(Vin Chaud')는 프랑스어로 와인을 뜻하는 '뱅(Vin)'과 따뜻하다는 의미를 가진 '쇼(Chaud)'가 합쳐진 합성어로 '따뜻한 와인'을 뜻한다. 유럽에서는 우리의 어묵처럼 자주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다. 레드와인에 오렌지나 사과 등의 과일을 넣고 데워 추운 겨울철에 따뜻하게 즐기기에 좋다.

폴마쏭 뱅쇼 클래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아영FBC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alliedyoung)에서 가능하다.

이태리 맥주 페로니 나스트라즈로(이하 페로니)는 페로니와 로드앤테일러 콜래보레이션 턱시도를 증정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10일까지 연한다. 페로니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eronikorea)에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품에 당첨된 모든 사람은 페로니가 개최하는 연말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턱시도는 지난달 27일 그레뱅 뮤지엄에서 열린 페로니 스타일링 클래스에서 국내 1세대 패션 블로거 유진이 소개하고 전 페로니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알베르토 루씨나가 직접 착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K-세일' 마지막주, 물량 대방출

주말 쇼핑 가이드

백화점업계, 각양각색 할인행사

유통가는 벌써 크리스마스준비로 한창이다. 특히 끝자락에 온 'K-세일데이'를 앞두고 백화점들은 막판 할인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K-세일데이 마지막주 잡아라

롯데백화점 본점은 오는 6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골프 겨울 특집전'을 연다. 슈페리어, 마루망, 바이셀 등 21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30~80% 할인 판매한다. 관악점은 6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메트로시티 스카프·장갑 인기상품전'을 준비했다. 이월상품 등을 30~70% 할인판매한다. 구리점도 같은 기간 7층 행사장에서 '아웃도어 방한의류 대전'을 연다. 11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는 9일까지 광장 특별행사장에서 오픈 1주년 기념 '자선 대바자회'를 벌인다. 나이키, 노스페이스, K2, 디스커버리 등 7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할인폭은 50~60%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주말동안 압구정본점, 판교점, 충정점 대행사장에서 100억 규모의 '남성 겨울 의류 대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에서는 남성 겨울 아우터 이월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압구정본점은 마에스트로, 갤럭시, 쟈딘앤보테르, 벨그라비아 등의 브랜드가 참여해 6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인다.

이 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는 '수입 캐주얼 겨울 상품전'을 진행하고 코트, 재킷, 패딩 등을 반값에 판매한다. 참여 브랜드는 마쥬, 산드로, 질스튜어트, 바네사브루노, 스테파넬 등이다. 신촌점 5층 대행사장에서는 '아웃도어 7대 브랜드 대형전'이 열린다.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등이 참여하며 할인폭은 최대 70%다.

갤러리아백화점도 K-세일데이 마지막주 고객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명품관에서는 이달 7일까지 여성컨템포러리 브랜드 까르벤의 2014년 겨울, 2015년 봄여름 상품을 최대 반값에 내놨다. 영국 남성브랜드 바버의 이월 상품역시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는 5주년을 맞아 6일까지 토이 페스티벌을 펼친다. 9층 특설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바비, 디즈, 너프, 마블, 퍼비, 퍼셔프라이스, 트랜스포어 등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완구 190여 개를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갤러리아 수원점과 진주점은 10일까지 '아웃도어·스포츠 윈터 페스티벌'행사가 열린다. 수원점에서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블랙야크, 아이더가 참여하며 진주점에는 밀레, 아이더, 컬럼비아 등이 참여한다.

◆케이크부터 신선식품 할인행사까지

대형마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판매와 신선식품 할인행사를 한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했다. 총 13종의 크리스마스 케익을 정상가 대비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예약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롯데마트 전국 매장 내 보네스빼, 빠뮤 등 베이커리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21~25일 사이에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김성현 기자

지난 10월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쇼핑대전인 'K-세일데이' 행사가 계속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K-세일' 행사 제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은 패딩 대신 '롱코트'가 대세

아우터 최강자로 등극한 코트 놈코어룩 강세·배우 패션 한 몫

올 겨울 다운재킷과 패딩을 밀어내고 코트가 겨울 아우터 최강자로 등극했다. 특히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코트가 트렌드를 주도할 전망이다.

3일 옥션이 최근 한달간 남녀 아우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여성용 롱코트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남성용 롱코트도 66% 판매가 늘었다. 같은 기간 롱가디건도 전년 대비 70%나 판매가 증가했고 이어 롱원피스가 27%, 롱스커트와 가죽롱부츠가 각각 14%, 6%로 소폭 상승했다.

긴 아우터의 매출 증가는 가을시즌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카디건의 유행이 겨울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길어진 패션 아이템의 인기 이유는 올해 초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놈코어룩의 강세로 오버사이즈 옷들이 인기를 끈데다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롱코트 패션을 자주 선보인 것도 한 몫했다.

오버사이즈의 롱코트는 두툼한 스웨터 혹은 누빔 자켓을 껴입어도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서 한 겨울에도 레이어드룩으로 손색 없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활동성과 스타일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선택이 많았다.

옥션 관계자는 "입동 이후 본격적으로 겨울 의류를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겨울 코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한동안 패딩 열풍으로 코트의 인기가 주춤했었는데 롱코트의 유행으로 패딩 대신 코트가 자리를 대신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롯데제과 초코파이·자일리톨

중량은 늘리고 가격은 그대로

롯데제과가 초코파이와 자일리톨껌의 중량을 늘린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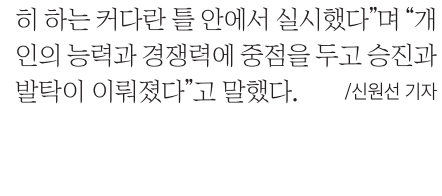
롯데초코파이는 개당 중량을 35g에서 39g으로 11.4%를 늘리고, 롯데자일리톨껌도 97g에서 108g으로 11.3% 증량한다. 두 제품 모두 가격변동은 없다.

초코파이의 경우 마시멜로우와 초콜릿을 추가했고 자일리톨껌은 한 봉지당 7알이 더 들어간다. 이들 제품은 12월 생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제과는 꼬깔콘(봉지팩)의 포장공간 비율을 지난 3월 기존 18%에서 16%로 줄였다. 찰떡파이는 8월부터 케이스의 공간 비율을 기존 12.4%에서 7.1%로 줄였다. /유현희 기자

신세계百 정유경 부사장, 총괄 사장으로

총 85명 정기 임원 인사 실시


김해성 사장 권혁구 사장 장재영 사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부사장이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다.

3일 신세계그룹은 부회장 승진 1명, 사장 승진 3명, 신규 대표이사 내정자 4명, 승진 57명, 업무위촉 변경 20명 등 총 85명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김해성 전략실장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권혁구 전략실 기획총괄 부사장은 신임 전략실장 선임과 동시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에는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이마트 식품본부장 최성재 부사장이 내정됐다.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로 신세계인터내셔날 글로벌패션 2본부장 조병하 부사장이, 신세계쇼핑 대표이사로 전략실 CSR사무국장 김군선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마트는 김해성 대표이사와 이갑수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부사장보에는 임병선 전략실 상무, 임영록 상무, 한채양 상무, 신세계 고광후 상무, 이마트 김성영 상무, 남윤우 상무, 이용호 상무, 신세계건설 조경우 상무가 승진했다.

신세계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현장 밀착경영을 강화하고 각사 책임경영·핵심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패션본부, 식품생활본부, 영업전략실을 상품본부로 통합, 일원화했다.

이마트는 브랜드별 전담 조직체계인 BM(Brand Manager)조직을 신설했다. 기존 식품본부와 라이프스타일본부를 상품본부로 통합하면서 상품개발 추진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세계 측은 "이번 임원인사는 그룹의 미래를 준비하고 핵심경쟁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커다란 틀 안에서 실시했다"며 "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승진과 발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연말 맞아 최대 50% 할인… 더페이스샵, 멤버십데이 이벤트

더페이스샵은 연말을 맞아 5일부터 10일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멤버십데이를 진행한다(사진).

이번 행사는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50~2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회원은 더페이스샵 직영몰(www.thefaceshop.com/m)에서 구입해야만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페이스샵 회원은 누구나 상관없이 베스트셀러 기획전을 통해 망고씨드 버터, CC쿠션, 컨실러 듀얼베일, 더프레쉬 포맨 플루이드, 잉크 립퀴드, 백삼콜라겐 진주환, 자생환 크림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규 회원가입 후 1만원 이상 구매 시 데일리퍼퓸핸드크림 1개를 증정하는 등의 추가 이벤트도 열린다.

대표적인 50% 할인품목인 '백삼콜라겐 진주환'은 직경 7㎜ 환(丸) 형태 캡슐에 진주의 유효성분을 농축시킨 프리미엄 주름개선과 미백 이중기능성 크림으로, 초도 생산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천연 망고씨앗 버터 성분을 함유한 '망고씨드 버터',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는 '잉크 립퀴드', 고농축 녹용콜라겐 앰플을 담은 '자생환 크림' 등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6년근 홍삼과 자연산 송이 등 프리미엄 원료를 고농축으로 담은 '천삼송이 자생크림', 겨울철 필수 보습 제품에 세계 대표 관광지의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담은 '2015 홀리데이 에디션' 등 다양한 제품도 30% 할인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엄윤성 셰프와 함께 하는 요리

집에서 만들어보는 '사천음식의 대명사'

연두부 마파두부

중국 사천음식의 대명사인 마파두부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천성의 성도에 치아오치아오라는 곰보이지만 착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기름집을 하던 남편과 행복하게 지냈으나 남편이 사고로 죽게 된다. 치아오치아오는 기름방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가 안쓰러워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다. 특히 옆에 있던 두부집과 양고기 집에서 그녀를 위해 먹을 것을 보내주었다.

이같은 호의가 너무 고마웠던 치아오치아오는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접할 것이라곤 양고기와 두부뿐이었다. 그녀는 이웃이 보내준 양고기를 잘게 다져 직접 만든 마라(혀가 얼얼하게 매운 중국식 매운 향료)를 섞어 두부와 함께 끓여 내었다.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양고기 두부 요리가 만들어졌다. 이웃들은 모두 음식 맛을 칭찬했고 치아오치아오는 이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치아오치아오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 음식의 이름을 곰보가 많은 아줌마를 뜻하는 '마파'라는 칭호와 두부를 합쳐 마파두부라고 불렀다.

본래 사천식 마파두부에는 화조라는 우리나라의 산초와 비슷한 향신료가 들어 가지만 오늘은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연두부 마파두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연두부로 요리가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레시피만으로도 가정에서 고급 중식당에서 즐기는 연두부 마파두부를 만들 수 있다.

/더 차이나플레인 선릉점 쉐프

재료

연두부 한모, 돼지고기 간 것 50g, 대파 한뿌리, 생강 10g, 마늘 20g, 청피망 반쪽, 홍피망 반쪽, 청양고추 1개,

소스

간장 1/2작은술, 청주 1/2작은술, 고추기름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두반장 1작은술, 고운고추가루 1/2작은술, 후추가루 약간, 노추 1작은술, 참기름 약간. 감자전분 2큰술

조리법

1. 연두부는 깍둑썰기를 하여 찬물에 넣고 끓여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4분 정도 삶아 건져준다. 부드러운 연두부는 한번 끓이면 겉면에 탄력이 생겨 쉽게 부스러지지 않는다. 청피망, 홍피망은 잘게 썰어놓고 대파와 청량고추는 반으로 갈라 송송 썰어준다.

2.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간 돼지고기를 볶아준다.

3.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향을 낸 뒤 간장과 청주를 넣어 잡내를 제거한다.

4. 잘게 썬 야채와 청량고추 대파를 넣고 살짝 볶은 후 두반장, 굴소스, 고춧가루, 후추가루, 노추(중국식 색간장)를 넣어 볶은후 물 한컵을 넣는다.

5. 물이 끓으면 데쳐놓은 연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으면 감자전분과 물을 1:1의 비율로 섞어 농도를 낸 후 참기름 한방울로 마무리한다.

연두부가 부담스럽다면 두부는 다른 종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두반장이 없다면 절반 분량의 고추장을 사용하여도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다만 시중의 고추장은 단맛이 많으므로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쓰면 더 좋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봄철에 풋마늘이 나오면 대파 대신 풋마늘을 넣어주면 훨씬 좋은 풍미를 낼 수 있다. 겨울철에는 부추가 연하고 향이 좋으므로 부추로 대체해 보는 것도 향긋한 마파두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매콤한 마파두부로 추위를 싹 날려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본 코너는 소중한 아기의 소규모 백일·첫돌을 빛내는 프리미엄 중식당 차이나플레인(www.chinaplane.co.kr)과 함께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윤혜전 교수

젊은 연구자상·최우수논문상 쾌거

〈日핵의학회〉 〈아세아·오세아니아 핵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이대목동병원 윤혜전 교수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핵의학회에서 '아시아 젊은 연구자상'과 제주도에서 열린 아세아·오세아니아 핵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윤혜전 교수는 'PET 영상바이오마커와 유방암 표현형 상관 관계'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암의 포도당 대사 정도와 신생 혈관 생성 정도가 유방암의 표현형에 따라 달라짐을 규명했다.

한편 윤혜전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핵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우리나라 핵의학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TV캠페인,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안전보건공단의 TV캠페인물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편이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뉴욕페스티벌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사보협회가 뉴욕페스티벌을 대신해 국내 방송 및 영상 중 1개 작품을 선정해 상을 전달했다.

올해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부문에는 1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약 40여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이 최종 선정됐다.

안전보건공단 TV캠페인은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활용해 '산재예방' 이라는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감성캠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메시지로 안전분야 만큼은 '빨리빨리' 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범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내 영상, 출판, PR 등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의 향상을 위해 마련한 24개 부문별 시상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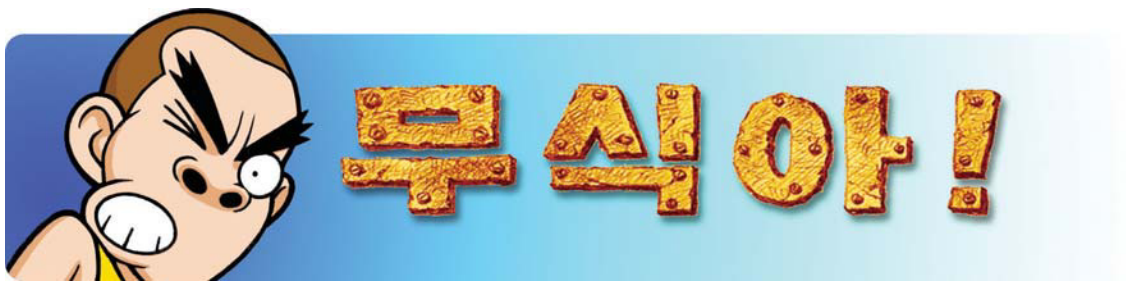
기업-농가 상생협력 주스 선봬 롯데칠성 '내몸사랑 사과사랑'

롯데칠성음료가 대기업-지역농가 상생협력 주스 '내몸사랑 사과사랑(사진)'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경북 지역 등지의 농가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유가치창출의 취지에서 탄생한 '상생 합작품'이다.

'내몸사랑 사과사랑'은 지역 특산 과일로 만든 '제주사랑 감귤사랑', '제철과실 청도홍시', '허니사랑 유자사랑'에 이은 농가사랑 기업사랑 콘셉트의 상생협력 주스시리즈다.

/유현희 기자



오해

Art By 현용민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1	9	6	8	5	4	2	3	7
2	7	4	9	3	1	8	5	6
8	5	3	6	2	7	1	9	4
7	3	2	1	9	8	6	4	5
9	6	5	7	4	2	3	8	1
4	8	1	3	6	5	7	2	9
5	4	9	2	7	6	8	1	3
6	2	7	4	8	3	9	7	2
3	1	8	5	1	9	4	6	8

2	8	5	6	3	4	9	7	1
1	9	4	2	7	6	3	5	8
6	7	3	8	5	1	4	2	9
3	5	7	9	8	2	1	6	4
9	4	2	1	6	3	8	5	7
8	6	1	4	9	5	2	3	7
5	3	9	7	2	8	6	1	4
4	1	6	3	4	7	5	9	2
7	2	8	5	1	9	4	6	8

9		5	3		2			
				1		7		
	7						1	5
	2	6		9				
1			2	4	3			9
				6		2	3	
4	9						5	
		8		3				
			4		8	6		1

	9			6			1	
	5					9		
8					7	6	3	
		5	3	4		2		
			7		5			
		2		8	9	7		
	2	4	1					9
		3					6	
	7			3			8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수능 상위권 아들의 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북쪽을 향해 자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성공예약 남자 1996년 11월 5일 양력 4시

Q 메트로 신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험과 취업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상담을 해야겠지만 우선 지면을 통해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아들은 1996년 11월 5일 새벽 4시경 태어났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 최고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저는 의대를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치외교학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세상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억지로 강요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선택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겠기에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A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있었던 일이지만 의사가 된 후 다시 법대로 가서 검사가 된 분이나 법대를 가서 사시에 응한 후 다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분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내용도 조금은 비슷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자신만의 방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요람이 되는 보금자리입니다. 잠자는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향하도록 해본다면 아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속냉속열(速冷速熱:쉽게 식었다가 쉽게 뜨거워짐)로 뒤끝이 다소 무력한 기운을 타고 있으니 취침의 방향만 바뀌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직업의 종류가 많고 부침(浮沈:가라앉고 뜨는 것)이 심합니다.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일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타고난 사주팔자 속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시대조류를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불리한 직업을 택할 수도 있죠. 또한 좋지 못한 운을 타고 났지만 주변의 여건과 처한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운의 흐름입니다.

사주팔자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집중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공부 운이 해자축(亥子丑)겨울밤을 뜻하므로 앉은 자리에서 음양이 교차하는 문을 갖고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세와 같아 전공의 방향이 지금 현실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4일 (음 10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60년생 너무 자만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소 49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1년생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73년생 뿌족한 것을 조심하세요. 85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 아래입니다. 62년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74년생 생식을 삼가세요. 86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윗사람에게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하나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75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87년생 결과를 주목 할 것입니다.

용 52년생 책임감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76년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88년생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세요.

뱀 53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65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7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89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가벼운 일탈은 기분전환이 됩니다. 66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세요. 78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9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67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을 하세요. 79년생 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원숭이 56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68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80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습니다.

닭 57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르겠습니다. 69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81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겠습니다. 93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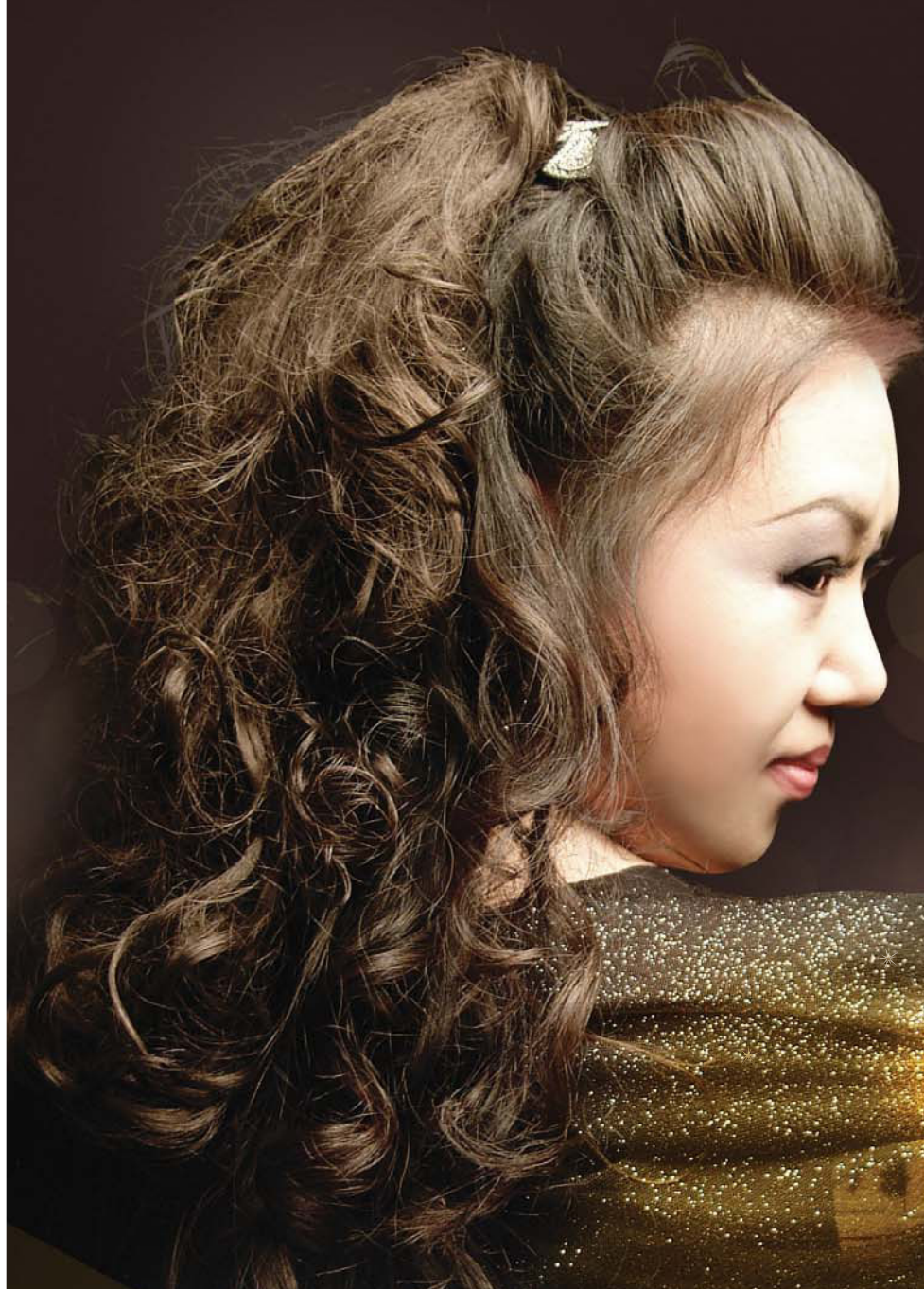
개 58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0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2년생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94년생 과음은 절대 피하세요.

돼지 59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71년생 신중하게 계획하고 행동하세요. 83년생 끈질긴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킵니다 95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CHRISTMAS IN LOVE

크리스마스 인 러브



with Friends

지휘 | 서희태

연출 | 이의주

소프라노 | 박미자

소프라노 | 오미선

소프라노 | 강혜정

소프라노 | 김문희

소프라노 | 박수진

테너 | 이영화

테너 | 나승서

테너 | 이재욱

바리톤 | 강형규

바리톤 | 한명원

테너 | 김동녘

합창 | 메트 오페라 합창단

연주 |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5. 12.21 | 월 |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연합회

티 켓 VIP 12만원 | R 10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3만원

예 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문 의 02-6292-9370

설레는 연말, 대미 장식할 문화행사는 뭐가 있을까?

12월 서울시 문화행사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에 설레는 12월을 맞아 서울시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어김없이 돌아온 송년공연의 계절,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제야음악회까지 클래식, 뮤지컬, 연극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울시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A Celebration of Christmas'를 공연한다. 유럽의 프리마돈나 조선형이 들려주는 '아베마리아', 오르가니스트 박은혜가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환상곡', 주빈트리오의 재즈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풍성하게 준비했다. 12일 오후 5시에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가 '로맨틱 콘서트'를 연다. 2010년부터 각기 다른 테마를 갖고 공연하는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 테마를 '사랑'으로 잡았다. 김연아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음악으로 잘 알려진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피아니스트 조성진 열풍으로 유명해진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야콘서트도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30, 31일 양일간 총 3회에 걸쳐 '2015송년제야콘서트'를 공연한다. 30일 오후 8시에는 송년콘서트 'Dearest 2015'를 연다. 악동뮤지션과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민다. 제야콘서트 'Present 2016'은 31일 오후 7시 30분, 10시 30분 2회에 걸쳐 관객을 만난다. 장사익, 김건모, 바다, 윤형렬 등 장르별 스타 출연진이 대거 출연한다. 특히 서울시무용단과 서울시합창단,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이번 무대에 웅장함을 더할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보면 더욱 즐거운 공연도 있다. 크리스마스 인기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과자 나라를 여행하는 내용이다. 와이즈발레단과 이원국발레단이 각기 다른 버전으로 공연한다.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4,5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원작의 우아하고 화려한 발레판타지를 살리면서 탭댄스, 세계 각국의 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선보인다.

이원국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24~26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과 우아하고 세련된 안무가 돋보이는 '꽃의 왈츠'로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24,25일 오후 7시 30분, 세종M시어터에서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동요와 이야기로 꾸며지는 가족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1904년 조선말 덕수궁 양이재 등 실제장소를 배경으로 꾸며진다. 조선왕조 마지막 왕자 영친왕의 고민과 갈등을 궁궐

왼쪽부터 서울시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A Celebration of Christmas',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로맨틱 콘서트',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야콘서트 'Present 2016',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스탠리 큐브릭 전'.

크리스마스 콘서트부터 뮤지컬·전시회까지
다채로운 행사 넘쳐… 골라보는 재미 가득

밖 친구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감동의 드라마다.

소년 소프라노 아카펠라의 대명사인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내한한다. 13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27,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정명훈의 지휘아래 서울시향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한다. 27일 오후 5시, 30일 오후 8시 총 2회에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4~27일 국악콘서트 '평롱:그 평안한 떨림'이 개최된다. 종묘제례악, 아리랑 등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한국 전통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7개로 구성된 레퍼토리 안에 서울 곳곳의 정취와 전통춤 춘앵무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영상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12월의 다양한 기획전시도 시민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故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그는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샤이닝' '아이즈 와이드 셧' 등 혁신적인 영상을 만든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내년 1월 29일까지 '백남준 그루브-흥'을 개최한다. 쌍방향 TV커뮤니케이션의 창시자 백남준 선생의 작품 세계를 다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전시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미술관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박물관에서는 내년 3월 27일까지 '간송문화전 5부-화훼영모'전을 선보인다. '화훼영모화'는 꽃, 새, 곤충, 물고기 등 동식물을 그린 그림으로 옛 선조들이 산수화나 인물화 못지않게 즐겨 그린 장르다. 이번 전시는 고려 말 공민왕에서 조선 말기 이도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에 걸친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12월의 문화행사·세부 행사문의는 서울문화포털 또는 각 해당기관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우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015년의 남은 한달도 서울시내 곳곳의 문화행사와 함께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달의 이벤트 소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메트로 독자들에게 확실한 문화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뮤지컬 〈쓰루더도어〉초대권
응모기간 : 2015-12-06까지
발표일자 : 2015-12-07

뮤지컬〈달동네 콤플렉스〉 초대교환권
응모기간 : 2015-12-07까지
발표일자 : 2015-12-08

TV 하이라이트

모차르트 능력자 특집

◆MBC '능력자들'

금요일 오후 9시 30분

이번주 '능력자들'에는 천재작곡가 모차르트에 빠져 사는 일명 '모차르트 능력자'가 출연한다. 모차르트를 향한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개그맨 김현철도 출연, 모차르트로 변장해 놀라운 지휘 실력과 모차르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선보인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12:10 국악한마당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0:55 접속! 무비월드	10:30 최고의 사랑 스페셜	11:30 응답하라 1988 (재)	09:10 국가대표	10:10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13:00 동물의 왕국	12:40 개그 콘서트 (재)	12:00 MBC 뉴스	12:00 SBS 뉴스	11:40 썰전 스페셜			
14:00 헬로카봇 2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3:20 문제적 남자 (재)	12:00 군도:민란의 시대	12:40 아바타
15:10 한국인의 밥상 (재)	14:15 오 마이 비너스 (재)	13:35 달콤살벌 패밀리 (재)		13:00 JTBC 뉴스	14:50 비밀독서단 (재)		
16:05 KBS 다큐 1		15:35 MBC 뉴스	14:25 런닝맨 (재)	13: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4:50 잭 더 자이언트 킬러	16:00 나는 전설이다
17:10 한국다움! 문화대한민국	16: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5:45 쇼! 음악중심	15:25 SBS 뉴스		16: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8:15 동행			15:35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재)	15:0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7:10 우리는 형제입니다	18:10 나도 영화감독이다
19:10 다큐 공감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6:50 토요일이 좋다	16:20 비정상회담 (재)	18:00 응답하라 1988 (재)		
20:00 한불 상호교류의 해 특집 K-arts,파리를 매혹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18:25 무한도전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50 응답하라 1988	19:30 투모로우	19:40 언노운
21:00 KBS 뉴스 9	21:15 연예가 중계	19:55 MBC 뉴스데스크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35 사람과 사람들	20:45 엄마	20:00 SBS 8 뉴스	19:40 JTBC 뉴스룸	21:40 SNL 코리아 시즌6		
22:50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23:3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22:00 내 딸 금사월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0:30 JTBC 드라마 스페셜 빠담빠담		22:00 빅매치	22:00 백여우 전설
23:40 콘서트 7080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2:00 애인 있어요	21:40 아는 형님 (1회)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4:45 T 타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3:00 히든싱어 4		24:20 명량	24:40 신세계
			24:15 더 랠리스트				
12:10 전국노래자랑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2:00 MBC 뉴스	09:30 TV 동물농장	10:50 히든싱어 4 (재)		10:40 빅매치	10:00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13:20 스카우트 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0:5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재)		11: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20 행복한 지도 (재)	13:10 대국민 토크쇼	13:15 화려한 유혹 (재)	12:00 SBS 뉴스			13:0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11:50 백여우 전설
15:40 다큐 공감 (재)	안녕하세요 스페셜		12:10 애인 있어요 (재)	13:00 JTBC 뉴스	13:00 SNL 코리아 시즌6 (재)		
16:30 미디어 인사이드		15:35 MBC 뉴스	13:15 스타!킹 (재)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50 콩트앤더시티 (재)	15:20 국가대표	14:30 프리미엄 러쉬
17:00 KBS 뉴스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4:20 SBS 인기가요	14:40 아는 형님 (재)			
17:10 제17회 한중가요제	16:50 해피선데이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5:45 정글의 법칙	16: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6:00 응답하라 1988 (재)	18:20 명량	16:30 트루 라이즈
19:10 도전 골든벨			16:50 일요일이 좋다	17: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19:55 부탁해요, 엄마	19:55 MBC 뉴스데스크	〈런닝맨/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	18:30 최고의 사랑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19:2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21:00 KBS 뉴스 9	21:15 개그 콘서트	20:45 엄마	20:00 SBS 8 뉴스	19:40 JTBC 뉴스룸		20:50 엑스맨:퍼스트 클래스	
21:40 역사저널 그날	22:50 다큐멘터리 3일	22:00 내 딸 금사월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30 유자식상팔자 (재)	21:30 곽승준의 콜까당		
22:30 취재파일 K	23:50 영화가 좋다	23:15 시사매거진 2580	22:00 애인 있어요	21:40 타인의 취향	22:50 문제적 남자		22:2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3:10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24:55 2015 특별기획 코리안 지오그래픽 (재)	24:05 능력자들 스페셜	23:10 창사25주년 기획 바람의 학교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3:30 빅매치	
24:0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24:20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5 (재)	24:20 아는 형님 (재)	24:20 응답하라 1988 (재)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슬픈 12월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슬픈 12월이다. 그동안 마주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소식이 연이어 들린다. 바야흐로 인사철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은행·증권·보험·건설 등 모든 업권에서 연말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가벼운 인사는 없다.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하지만 더욱 가슴 졸이는 건 임원들이다. 회사 임원들은 대부분 임기가 1년이다. 그래서 연말이 두렵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는다. 20년, 30년의 직장생활. 연임이 안된다는 비보를 듣는다. 슬픔의 하중을 한꺼번에 받아내야 한다. 상사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가족에게도 면목이 없다. 명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장 다른 명함을 찾아야 한다. 쉽지 않다. 불황이다. 임원 직함을 달았던 사람이 안착할 곳이 많지 않다. 갈 곳이 있다면 행복할 따름이다. 그동안의 영광은 이제 과거사다. 현재진행형이 될 수 없다. 옛날엔 그랬지라는 말이 있을 따름이다. 위로 전화가 울리지만 선뜻 받기가 두렵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도 정리해야 한다.

재력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부족하면 불편한 것이 돈이다. 아내가 훌륭한 재테크를 했다면 복이다. 그러나 샐러리맨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오래 살 리스크도 있다. 100세시대에 얼마만큼의 돈이 충분할까.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사람도 있을 터.

회사 생활하면서 집에는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회사를 위해 명예를 위해 달렸던 사람들이다. 윗사람 눈치보고, 아랫사람 챙기고 눈코뜰새 없었다. 그래서 가정은 나몰라라 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우리 시대 아버지상은 '철저한 무관심'이 미덕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 아들, 딸에게 환영받을 일도 없다. 어느날 아들의 수학숙제를 거들었더니 "언제부터 아빠가?"라며 짜증을 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게 무관심하던 아빠가 어느날 갑자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내에게도 남편은 마찬가지다. 회사를 그만 두고 집에 있으면 오히려 밖에 나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할 지 모른다. 집에서 삼시 세끼를 찾으면 '삼식이' 소리를 듣는 세상이다. 슬픈 현실이다.

회사에서 박수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하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했다면 말해 무엇할까.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날 갑자기 집에 가라는 말을 듣는다. 냉엄한 샐러리맨의 현실이다. 그나마 최근 인사에선 '사상 최대 임원인사'라는 뉴스가 크게 줄었다. 경기침체 탓이다. 경기가 좋을땐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사상 최대 인사를 냈다. 그만큼 집에 가는 사람도 많았다는 의미다.

'정조 이산 어록'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데…평소에 마음을 두고 고르고 살펴 재능과 기량을 감별하여 각기 그 쓰임에 알맞도록 한다면 이 세상의 인재로도 한세상의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매번 미리 갖추고 평소에 대비하지 못하여 급한 상황에서 구차히 충원하면 인재가 누락되고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근심을 면하지 못한다….'

각 기업의 인사는 한마디로 경영권이다.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부디 이번 인사로 인해 후회하지 않길 기대할 뿐이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社說

위안화 변동성 더욱 잘 대비해야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에 편입돼 국제통화로 신분상승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질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국채를 3조원 가까이 보유해 룩셈부르크와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관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에 특히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개발연대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달러부족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안화라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외부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도 한결 좋은 환경이 됐다. 위안화로 직거래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때마침 FTA까지 맺어졌으니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중국 금융시장의 불투명성과 통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도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어느날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거나 절하해 왔다. 중국의 경제통계가 발표되면 곧바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몹시 요동쳤다. 더욱이 그 통계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에는 아직 안개가 짙고 위안화의 움직임도 쉽사리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위안화의 작은 변화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질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우리에게 양날의 칼인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변동 가능성에 더욱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중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고,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위안화 보유비중을 높이면서 중국 경제정책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금수저'·'흙수저'와 '저커버그'

기자 수첩
정 은 미
〈산업부〉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적인 언어가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따라 더 갖게 되는 불평등을 꼬집은 것이다.

부모의 든든한 재력이 없으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에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수저 계급론에는 가진 자의 책임보다는 불법과 편법 등을 더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아과 전문의 프리실라 챈 부부는 금수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다.

저커버그 부부는 '교육과 질병 퇴치,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활동할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생전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이는 현 시가로 따져서 45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해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올린 저커버그 부부는 개인의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과 딸에 대한 사랑으로 거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미국에서 이 같은 기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45세 때 전 재산의 95% 기부를 약속했고 워런 버핏 역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며 한국 사회의 금수저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대표적인 금수저로 불리는 한국 재벌들의 경우 사회공헌을 위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녀 출생 기념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며 올 연말인사에서도 오너가의 3·4세 승진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재벌들이 그간 쌓아온 부의 축적 방식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재벌들도 개인의 안락함을 넘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송년모임 살찔 걱정 덜려면

소비자 119

송년행사가 많은 연말이다. 연말 모임은 술과 푸짐한 먹거리가 기본이다. 그러나 잦은 송년회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기 쉬운 것도 이 때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이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연말 모임으로 인한 뱃살 고민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매일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고칼로리 안주를 피하고 싶다면, 빈 속을 미리 채워놓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과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식품 '병 베지밀A'는 콩을 고스란히 갈아 만든 식물성 음료도 다이어트 효과와 오랜 포만감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모임 전에 간편하게 두유로 허기를 달래면 고칼로리의 안주로 배를 채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두유는 술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도 좋다.

만남과 담소의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전부리다.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주워먹게 되는 주전부리는 칼로리가 되도록 낮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농심 켈로그의 구운 감자칩 '스페셜K 라이트 칩'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삭하게 구워낸 감자칩에 맛있는 양념을 더해 맛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특히 21개의 감자칩(1회 제공량)이 바나나 1개와 비슷한 93칼로리 밖에 되지 않아 몸매 관리 중인 여성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은 칼로리가 낮은 '바다야채'로도 불린다. 동원F&B의 간식용 김 '양반 스낵김'은 김 두 장 사이에 아몬드, 통밀, 메밀 등을 넣고 바삭하게 구운 간식용 김이다.

술로 인한 살이 걱정이라면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를 주목하자. 열량이 일반 맥주보다 33% 낮은 100㎖ 기준 27칼로리에 불과하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한국타이어그룹 〈한국타이어㈜〉◇부사장△이수일 중국지역본부장 △김형남 연구개발본부장 겸 구매부문장 ◇ 전무
△원성호 한국지역본부 마케팅&영업부문 △김용희 생산기술부문 △김한준 경영운영본부 경영관리부문 ◇상무 △김형윤 중국지역본부 강소공장 △김학주 연구개발본부 재료담당 △김재희 생산기술부문 인도네시아공장 ◇상무보 △최인호 구주지역본부 북/중유럽&CIS담당 △김종백 연구개발본부 연구기획담당 △장인석 구주지역본부 헝가리공장 부공장장 △권순남 생산기술부문 제조기술담당 △양시준 구주지역본부 마케팅&영업담당 마케팅전략팀 △권혁진 경영기획본부 기업커뮤니케이션담당 △어용수 G.OE부문 G.OE영업담당 OE영업2팀 △김선중 마케팅본부 G.Sales부문 아세안-인도 M&S담당 △이용관 중국지역본부 영업담당 직영판매팀 △정일룡 경영운영본부 경영관리부문 총무팀 △전일환 중국지역본부 중경공장 부공장장 △최석호 생산기술부문 인도네시아공장 기술팀 △길기종 연구개발본부 상품개발1담당 PC개발3팀 △박정수 G.OE부문 중국OE담당 △최재억 연구개발본부 상품개발2담당 △클라우스 클라제 연구개발본부 ETC(유럽테크니컬센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상무 △최창희 경영인프라부문 HR담당 △홍주웅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부문 경영혁신담당 ◇상무보 △정종호 한국지역본부 마케팅&영업부문 사업개발담당 〈㈜아트라스비엑스〉 ◇전무 △지광진 마케팅부문장 ◇상무보 △최석모 연구개발담당 △우상은 마케팅전략팀
◆KBS아트비전 △사장 서재석 △이사 신창섭
◆교보증권 △ 청주지점장 윤경옥
◆국민일보 △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염성덕 △ 종교국 종교부장 전정희
◆하이트진로 △ 부사장 박태영 △ 전무 최경택 △ 상무 장인섭, 김창규 △ 상무보 이승돈, 성동욱, 최선규, 정희준, 권홍봉(일본법인)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 승진 권혁구 △부사장 승진 양춘만 △부사장보 승진 임병선 인사총괄 △상무 승진 정동혁 〈신세계백화점부문〉 △사장 승진 정유경 〈신세계이마트부문〉 △ 상무보 승진 이달수 〈신세계〉 △사장 승진 장재영 △상무 승진 김선진 김영섭 김태진 정화경 △상무보 승진 김낙현 이권섭 이동훈 최종배 〈이마트〉 △부회장 승진 김해성 △부사장보 승진 김성영 남윤우 한채양 △상무 승진 김홍극 김득용 △상무보 승진 김맹 김석봉 김수완 김일환 이내욱 이민기 이마트 패션레포츠담당 이주호 이형천 이형철 장영진 장재훈 〈신세계인터내셔날〉 △부사장보 승진 고광후 △상무 승진 백관근 조인영 △상무보 승진 유영석 〈신세계푸드〉△대표이사 내정 최성재 △상무보 승진 김석순 〈신세계건설〉 △부부사장보 승진 조경우 △상무보 승진 민일만 오상근 〈신세계I&C〉 △상무 승진 서정원 △상무보 승진 김승환 고학봉 〈신세계조선호텔〉 △부사장보 승진 이용호 △상무보 승진 유춘석 〈신세계DF〉 △부사장 승진 손영식 △상무 승진 임승배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내정 조병하 △상무보 승진 우정섭 〈에브리데이리테일〉 △상무보 승진 김철수 장경철 〈신세계쇼핑〉 △대표이사 내정 △김군선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보 승진 임영록 △상무보 승진 이정철 전상진 △상무보 승진 강영태

부고

▲ 남금자씨 별세, 조경만(메트로신문 광고마케팅국 부국장)·경두(사업)씨 모친상 = 3일 오전 3시, 충북대학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43-269-7213.

▲ 민병우씨 별세, 민석기(삼성전자 수석연구원)·혜경(인천 발산초등학교 교사)·준기(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과장)씨 부친상, 송병찬(성신양회 팀장)씨 장인상 = 3일, 이대목동병원 특 3호, 발인 12월 5일 오전 10시 02-2650-512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김락기 수안보상록호텔 사장 시조

'수안보 속말' 가곡으로 울려퍼진다

임긍수 가곡음악회 개막곡

충북 충주 수안보상록호텔 김락기 대표(62·**사진**)의 시조 '수안보 속말'이 5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열리는 제2회 임긍수 가곡음악회 개막곡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김 대표는 2003년 등단한 시조시인으로 현재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대구 지역 고교생 문학 동아리를 조직해 활동했다.

진로를 바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간 그는 2003년 뒤늦게 등단하면서 가슴에 품어왔던 작품들을 세상에 공개했다. 시조집과 자유시집을 2권씩 펴냈다. 지금까지 쓴 작품은 미발표작을 합쳐 500여 편에 달한다.

세계문학상 시조 대상(2008)과 시조문학 창간 50주년 기념 작품상(2010), 문학세계문학상 시 대상(2012) 등 숱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수안보 상록호텔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수안보 속말'과 '미륵 대원지 여래입상' 등 수안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써 왔다. '수안보 속말'은 호텔 로비에 전시된 작품을 우연히 본 작곡가 임긍수 씨의 제안으로 시조에서 가곡으로 거듭나 이번 서울 공연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는 수안보 온천제에 맞춰 호텔에서 전국의 시조시인이 모이는 한마당 잔치인 시조문예축전도 열고 있다.

김 대표는 시와 시조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 입상할 정도로 그림에도 소질이 있다.

그는 "시를 쓰다 보면 세상살이의 상처가 치유되고 힘들고 괴로운 걸 모두 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승격-강등, 한 판에 달렸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내일 부산구덕운동장서 2차전
수원, 1차전 승리로 유리한 고지
뒷공간 역습… '공격축구' 선언

부산, 최근 16경기 무승 '벼랑끝'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 반격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FC의 경기. 부산 웨슬리가 돌파를 하고 있다. 1차전은 수원이 1대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밀리면 2부리그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노리는 수원FC와, 처음 챌린지(2부리그) 강등의 위기에 빠진 부산 아이파크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5일 오후 4시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벌일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바로 이들의 운명이 걸린 경기다.

1차전에서 승리한 수원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부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은 두 팀 모두 1명씩 퇴장당하는 접전 끝에 후반 막판 결승골을 꽂은 수원이1-0으로 승리했다.

수원은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내년 시즌부터 클래식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1-0으로 지더라도 1승1패 동률이 돼 연장전으로 갈 수 있다. 지더라도 골을 넣고 1골차 패배를 당한다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클래식 승격의 기회를 얻는다.

수원은 원정으로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공격축구'를 선언했다. 조덕제 수원 감독은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부산의 뒷공간을 이용하는 역습으로 승리를 따내겠다"며 클래식 승격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은 이번 시즌 챌린지 정규리그에서 후반 31~45분 사이에 13골을 몰아 넣었다. 또 후반 추가 시간에만 5골을 넣을 정도로 후반 막판 집중력이 뛰어나다.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의 막판 골도 수원의 장점이 드러난 예다.

부산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부산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하락세를 거듭했다. 부산은 4월 15일 11위로 추락한 이후 정규리그가 끝날 때까지 1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즌 도중 사령탑 교체의 아픔을 겪은 끝에 지난 10월 최영준 감독이 부임했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은 지난 7월 26일 대전 시티즌을 2-1로 이긴 이후 정규리그에서 무려 15경기(6무9패) 무승에 허덕였다. 정규리그를 마감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까지 합치면 최근 2연패에 16경기(6무10패) 동안 승리가 없다. 부산은 2부 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골 차 이상 승리와 16경기에서 무승의 고리를 끊어야하는 두가지 숙제를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부산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공격수 홍동현이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해 2차전에 나설 수 없는 점도 약점이다. 부산의 마지막 희망은 '슈틸리케호 황태자' 이정협이다. 안면 복합 골절로 이번 시즌 막판 고생했던 이정협은 상무에서 전역한 뒤 부산에 합류했지만 최근 오른 발목을 다쳐 팀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최영준 부산 감독은 "주축 공격수가 못 나서는 만큼 이정협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벼랑 끝 승부를 예고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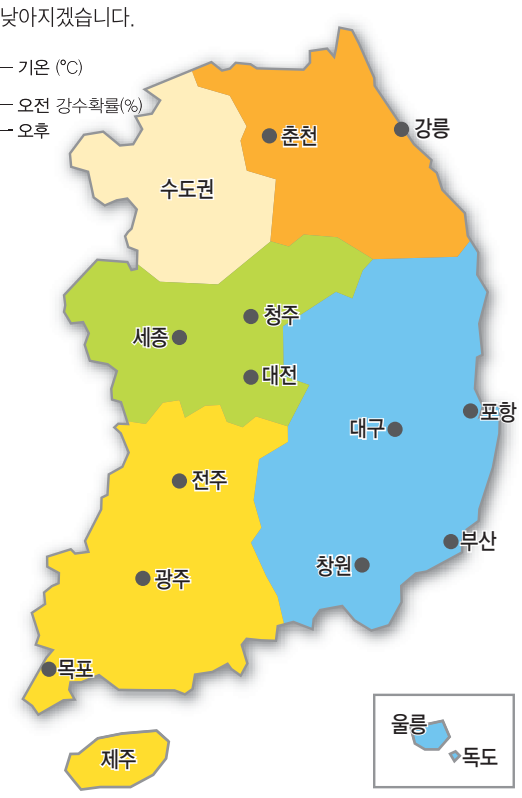
해뜸/07:30 | 해짐/17:14

12월 **4**일
금요일 (음력 10월 23일)

전국에 구름… 눈은 낮에 대부분 그칠 듯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기남부와 충청이남지방은 눈이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0~6.0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춘천	강릉	세종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목포	제주	대구	창원	포항	부산	울릉
기온(℃)	-4/4	-2/7	0/5	0/6	-1/5	1/8	-1/5	2/7	5/8	1/7	1/10	2/8	2/10	1/6
오전 강수확률(%)	20	10	80	80	70	80	70	70	60	20	20	10	10	60
오후	20	10	20	20	30	20	20	20	20	1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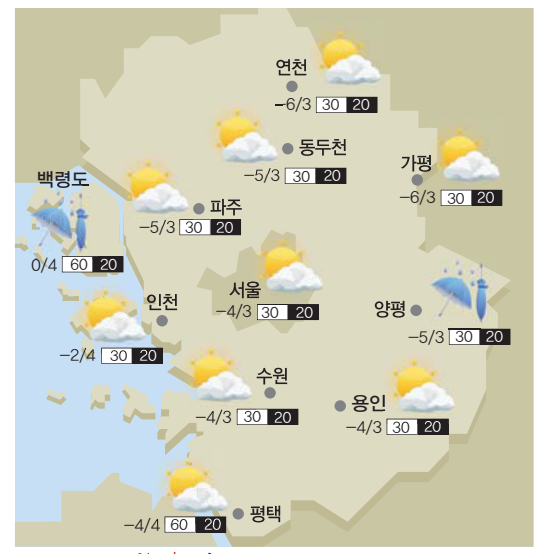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3~-4℃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2:51/14:36	08:30/21:06
인천	10:38/23:06	04:36/16:45
울산	01:43/13:32	07:49/19:45
군산	09:07/21:37	03:24/15:25
목포	08:01/20:30	01:19/13: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G, 야생마의 귀환

유망주 육성 '피칭 아카데미' 신설
이상훈 투수 코치, 초대 원장 선임

LG 트윈스에 야생마가 돌아왔다.

투수 시절 긴 머리가 말의 갈기를 연상케 해 야생마로 불리던 이상훈(44·사진) 투수 코치가 친정팀 LG 트윈스로 복귀한다.

LG는 3일 투수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피칭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이상훈 코치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피칭 아카데미는 팀 내 가능성 있는 투수 유망주를 선별해 선수 개인별 목표와 육성기간을 설정하고, 이상훈 코치

가 일대일로 집중 지도하는 시스템이다. 이 코치는 2016년 1차 지명 신인인 김대현(18), 2016년 2차 1지명 유재유(18) 등 투수 유망주 육성에 힘쓰게 된다.

이 코치는 직전까지 두산 베어스의 2군 투수 코치로 활동하다가 지난 2일 LG와 계약했다. LG는 이 코치를 데려오고자 두산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는 2004년 LG에서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된 후 11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게 됐다.

영원한 LG맨으로 불리는 이 코치는 취임 소감으로 "LG에서 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해 노력하겠다"며 "두산 코치로 갈 때 LG 팬들에게 정말 죄송했었다. 두산에서 다시 LG로 오게 되니 두산 팬에게 미안하더라. LG 팬에게 감사드리고 두산 팬들에게도 역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미네소타 팬 10명 8명 "박병호, 웰컴"

美 일간지 '스타트리뷴' 설문
응답자 82% 긍정반응 보여

"웰컴 박병호."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 팬 10명 중 8명은 박병호(29)의 영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호가 미네소타와 공식 입단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일(이하 현지시간) 미네소타 주 최대 일간지 '스타트리뷴'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박병호와의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총 1496명이 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49%(726명)가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고 33%(491명)가 "확신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해 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대감보다 회의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4%(213명),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4%(66명)에 불과했다.

스타트리뷴은 이날 별도 기사에 박병호가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프리미어12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미국을 상대로 3점 홈런을 뽑아낸 순간 사진을 싣고 트윈스는 박병호의 '파워'를 인정하고 전력 보강을 위해 계약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또 위험도는 낮은 반면 투자 이상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평했다.

이 신문은 트윈스는 박병호를 다음 시즌 지명타자로 쓰기 위해 4년간 1200만 달러(옵션 포함 5년 최대 18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결된 다른 계약에서 검증된 선수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보스턴 레드삭스는 자유계약시장(FA)에 나온 좌완 데이비드 프라이스와 7년간 2억17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을 감안할 때 미네소타의 계약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스타트리뷴은 "장타력은 또다른 고가 상품이다. 박병호는 최근 2년간 (268경기에서) 105개의 홈런을 때렸다"면서 "트윈스는 세일 가격으로 영입한 박병호가 팀의 득점력을 보강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한국에서 보여준 홈런 실력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박병호가 넥센 히어로즈에서 친 홈런의 절반만큼만 때려준다 해도 트윈스 역사상 FA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 가운데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선수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시내티 레즈·몬트리올 엑스포스·워싱턴 내셔널스 단장을 거쳐 현재 스포츠전문 채널 ESPN 야구 전문 컬럼니스트 짐 보우든은 "박병호가 기대만큼 쳐준다면 테리 라이언 트윈스 단장에게 그야말로 홈런 같은 일"이라며 "박병호 포스팅비용과 연봉은 빅마켓이 아닌 트윈스로서는 도박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화끈한 비스버거' 426야드 최장거리 티샷
'운 좋은 배들리' 336야드 최장거리 홀인원

기록으로 본 2014-2015 PGA
매킬로이, 평균 비거리 311.5야드
美 플랜테이션 코스 '장타 공장'

"멀리 더 멀리."

미국프로골프(PGA)투어나 유럽투어 선수들의 장타력은 얼마나 될까.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지난 9월 PGA챔피언십 때 휘슬링스트레이츠 골프장 15번홀(파4·530야드)에서 드라이버로 친 샷은 377야드 가량 날아갔다. 두번째샷에서는 153야드를 남기고 9번 아이언으로 쳐 홀 3미터 거리에 붙였다. 매킬로이의 2014-2015 시즌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는 311.5야드에 달한다.

이 기록은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를 비롯한 더 짧은 클럽을 사용했을 때 비거리도 포함돼 있는 수치다. 매킬로이는 프라이스닷컴오픈 2라운드 때는 350야드 짜리 초장거리 드라이버 샷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매킬로이를 능가하는 선수도 많다. 지난 8월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4라운드 때 16번홀(파5·667야드)에서 베른트 비스버거(오스트리아)는 무려 426야드를 날아가는 초장거리 티샷을 날렸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한때 뛰었던 마크 리시먼(호주)도 같은 날 16번홀에서 410야드 짜리 초장타를 선보였다. 파이어스톤 골프장 16번홀은 장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PGA투어 '공인'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도 이곳에서 406야드짜리의 큰 포물선을 그렸다. 버바 왓슨(미국)도 지난해 대회 때 파이어스톤 골프장

로리 매킬로이는 지난 9월 377야드의 장타를 기록했다. /AP연합

16번홀에서 424야드를 날렸다.

해마다 연초에 지난 시즌 투어 대회 우승자만 불러 모아 치르는 현대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대회가 열리는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의 플랜테이션 코스도 장타가 많은 코스다.

PGA투어닷컴이 집계한 2014-2015시즌 장거리 티샷 순위 10위를 보면 400야드가 넘는 초장타 가운데 5개는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나왔고 3개는 파이어스톤 골프장 16번홀에서였다.

2014-2015시즌 가장 짜릿한 드라이버샷의 주인공은 애런 배들리(미국)다. 배들리는 지난 3월 TPC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발레로 텍사스오픈 1라운드 때 17번홀(파4·336야드)에서 티샷이 로스트볼이 되자 티잉 그라운드에서 세번째샷을 쳤다. 이 볼은 정확하게 그린 앞에 떨어진 뒤 굴러 올라와 홀에 빨려 들어갔다. PGA투어가 비거리 관련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장거리 홀아웃 기록이다. 파4홀에서 첫 티샷을 잃고 벌타를 받은 후 버디를 잡아낸 희귀한 사례이기도 하다.

/유현희 기자

레깅스에 롱니트 하나면 겨울 외출준비 끝!

레깅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추위때문에 스타일을 살리기 쉽지 않은 요즘 레깅스는 각선미도 뽐내고 보온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겨울 대표 아이템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기념으로 구매한 겨울 스커트를 추위 때문에 장롱에 꽁꽁 숨겨둘 수는 없는 일. 레깅스와 패션삭스의 힘을 빌어 여름과 가을 동안 다이어트에 매진한 결과를 드러내보자.

▶ 앙고라 패션삭스는 와이드팬츠를 입을 때 특히 효과적인 아이템이다.

앵클부츠에 패션삭스로 트렌디하게
세로 패턴 타이츠로는 각선미 부각
부담없이 편한 자리엔 레깅스팬츠

◆앵클부츠와 앙고라 패션삭스

올 겨울 부츠 길이가 짧아졌다. 종아리를 전부 덮는 롱부츠, 중간까지 오는 미들 부츠 대신 발목 부분에서 깔끔하게 끝나는 앵클부츠가 가을에 이어 겨울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앵클부츠는 여성스러운 느낌의 원피스나 스커트는 물론, 최근 유행하는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나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 슈즈다.

다만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발목 위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겨울에는 조금 추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따뜻한 질감과 색상의 패션삭스(양말)를 매치해주면 보온성도 높아지고 트렌디한 멋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각선미 살려주는 보온소재 타이츠

겨울철 여성들이 가장 멋내기 좋은 아이템은 바로 타이츠다. 타이츠 역시 겨울을 맞아 보온성을 높인 소재들이 다양하다. 일반 타이츠보다 도톰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면 타이츠나 기모, 융 등 안쪽 면이 후끈한 털로 되어 있는 타이츠라면 추위따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온성 높은 소재의 타이츠들은 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다리가 다소 두꺼워 보일 수 있다. 각선미까지 살리고 싶다면 타이츠의 패턴이나 같이 매치할 아이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로로 길게 이어지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리를 길고 얇아 보이는 효과를 낸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폭이 넓으면 다리도 굵게 보이기 쉬우므로 가급적 좁은 간격으로 된 스트라이프 패턴 타이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비안 디자인실 강지영 팀장은 "타이츠 자체의 패턴도 중요하지만 함께 매치하는 구두 또는 부츠의 색상을 같게 통일하거나 비슷한 색상톤으로 매치하면 시선이 발끝까지 이어져 각선미를 강조할 수 있다"며 "다리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미니원피스나 짧은 반바지에 타이츠를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편하고 따뜻한 레깅스 팬츠

남성들이 내복 같다고 폄하하지만 레깅스는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엉덩이를 덮어주는 긴 길이의 티셔츠나 니트에 레깅스만 신으면 외출 준비가 간단히 마무리된다.

올 겨울에는 레깅스보다 좀 더 '바지 같은' 레깅스팬츠가 대거 등장했다. 레깅스가 신축성이 좋아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 약간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레깅스팬츠는 일반 바지와 같은 모양새에 레깅스의 신축성을 합한 아이템이다. 원사로 짜는 일반 레깅스와 달린 두툼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 몸의 곡선이 부담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퍼 등의 여밈 장치 없이 허리 부분이 넓은 밴드로 되어 있으며, 바지보다 신축성이 좋아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다리 옆선에 세로줄로 포인트를 준 레깅스팬츠는 다리도 길어 보임은 물론 엉덩이 부분에 포켓도 달려 있어 마치 진짜 바지처럼 입을 수 있다. 레깅스팬츠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무채색 톤으로 코디한 후 머플러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시크한 겨울룩을 완성할 수 있다.

좀 더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치마레깅스를 입어보자. 특히 치마 부분이 도톰한 패딩 소재로 된 패딩 치마레깅스는 겨울에 매우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상의는 다소 낙낙한 핏의 니트를 매치해주면 소녀 같은 귀여운 느낌이 살아난다. 여기에 운동화나 짧은 털부츠 등으로 캐주얼한 겨울룩을 연출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도움말: 남영 비비안

▲ 각선미를 살려주는 스트라이프 타이츠.

▲ 치마레깅스는 소녀적인 감성을 드러내준다.
◀ 레깅스가 부담스럽다면 바지같은 레깅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56호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라이프]
레깅스 하나면
겨울 외출준비
끝!
19

연재만화

14

K팝이 떴다, 홍콩이 들썩였다

'2015 MAMA' 현장을 가다

단순한 시상식 아닌 문화교류의 장으로
중소기업 육성·동반성장 좋은 기회 돼

문화교류와 음악시상식 사이 '갈팡질팡'
출연 가수 중심 '구색 맞추기' 수상 아쉬워

[홍콩=장병호 기자]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이하 MAMA)'는 CJ E&M이 매년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1999년 '엠넷 영상 음악 대상'으로 출범해 2009년부터 '아시아의 최대의 음악 축제'를 표방하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시상식 장소를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외 아티스트들을 섭외해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위상을 갖춰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국내외 기업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시상식이 아닌 문화교류의 장

CJ E&M에게 'MAMA'는 문화교류의 장이다. 지난 2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J E&M 엠넷콘텐츠부문의 신형관 부문장은 "'MAMA'는 단순한 음악 시상식이 아니다. 아시아 문화와 음악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CJ E&M의 그룹 모토와도 상통한다. 신형관 부문장은 "문화라는 것을 한 편의 영화, 혹은 하나의 음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의식주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CJ E&M이 생각하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텍사스에서 온 50대 백인 여성이 그룹 틴탑의 음악을 들으며 떡볶이를 먹는 것"을 예로 들며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홍콩 현지에 소개하는 프리위크 프로그램(사전 행사) 'MAMA 노미니즈 데이 앤 나잇(Nominees' Day & Night)'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홍콩 구룡반도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플라자 할리우드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43개 중소기업 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7만여 명의 현지인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기간 올린 매출은 약 1억4300만원이다. 이어 2일에는 시상식이 열리는 아시아월드 엑스포 행사장에서 중화권 바이어가 참석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MAMA'의 행사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성장을 하나로 묶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롱엘텍의 김진국 대표는 "홍콩 현지인과 직접 만나 그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MAMA'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 바이어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정체성 모호한 음악 시상식

그러나 일반 대중이 'MAMA'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이름 그대로 음악 시상식으로서 'MAMA'를 기대하고 즐긴다. 'MAMA'에 대한 CJ E&M의 기대와 대중의 반응 사이에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다.

'MAMA'는 국내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한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아시아 최대의 음악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도 빅뱅, 싸이, 엑소, 태연, 샤이니, 박진영, 갓세븐 등 SM·YG·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올랐다. 씨엔블루, FT아일랜드, AOA 등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는 해외 투어 등의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아쉬움을 남겼다.

수상의 공정성과 행사 진행 과정도 매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연 가수들을 중심으로 상을 나눠줘 '참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출연 가수들이 스케줄 문제로 행사 도중 자리를 비운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수' 부문을 수상한 그룹 빅뱅 멤버 태양은 "마지막까지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가수들이 자리에 있지 않아 아쉽다"는 소감으로 섭섭함을 표했다.

'올해의 가수' 부문을 수상한 빅뱅 멤버들이 시상자인 배우 주윤발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물론 CJ E&M도 'MAMA'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시상식으로서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 올해는 최초로 전문부문 시상을 만들었다. 프로듀서, 엔지니어, 공연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상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3개국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구색 맞추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MAMA'의 문제점은 하나로 연결된다. 시상식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바로 모호한 정체성이다. '아시아의 그래미'와 '아시아 문화교류의 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신형철 부문장은 "'MAMA'는 전문성으로 상을 주는 그래미와 달리 팬덤에서 출발한 시상식"이라며 "인기 이외의 잣대로 기준을 마련해 상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MAMA'만의 색깔을 설명했다. 'MAMA'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solanin@metroseoul.co.kr

사진/CJ E&M

'MAMA 노미니즈 데이 앤 나잇' 행사에서 홍콩 시민들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